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기반의 구축과 활용

- 趙克善의 『忍齋』·『治谷日錄』에 나타난 지식정보의 획득 및 활용양상 -*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家藏書籍」을 통해 본 조극선 藏書의 규모와 범주 : 17세기 사대부의 지식 문화기반
- III. 지식문화인프라 조성 양상 : 서책의 입수 및 획득 경로를 중심으로
- IV. 지식 및 학술정보로서의 聞見 : 師友談論을 통한 문건의 수렵과 정제
- V. 지식문화인프라의 활용 양상 : 李滉·李珥·金長生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지성사 연구의 일환에서 17세기 사대부가 구축, 운용했던 지식문화인프라의 형질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인 趙克善은 충청도 德山 출신으로 李命俊·朴知誠·趙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집 『治谷集』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을 남겼고, 학행으로 징소되어 童蒙敎官·工曹佐郎·成均館司業·司憲府掌令 등 山林職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학자·관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0-C1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ksoya@aks.ac.kr

한국의 지성사 또는 사상사 연구의 작은 결함은 한 개인이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해명이 부족했다는 데 있으며, 이 글은 그 결핍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른바 17세기 지식인들은 어느 규모의 藏書를 비치하고 있었고, 그 장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되었으며, 나아가 그 장서는 지식인의 자기계발 또는 성장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성사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학문적 공정이다. 책에 못지 않게 지적 성장 및 학자적 식견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우들과의 담론을 통해 축적되는 聞見이라는 전제 위에서 본고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특별히 注視했다.

정파·학파라는 조선시대적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지성사를 논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이 갖는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이다. 조극선은 이이·성혼을 종사로 하는 기호학과 계통의 학인으로 분류되지만 그가 보여준 퇴계학에 대한 학습 열정은 동시대 영남 학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 주제어

趙克善, 忍齋日錄, 冶谷日錄, 知識文化, 書冊, 聞見, 知性史, 藏書, 李滉, 李珥, 金長生, 李命俊, 朴知誠, 趙翼

I. 머리말

이 글은 趙克善(1595-1658)의 일기 『忍齋日錄』(1609-1623)·『冶谷日錄』(1624-1635)을 통해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 양상을 지적 嗜好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지성사는 특정 知性的 지식문화적 성취와 의의에 대한 해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學人의 지적 축적의 과정에 대한 ‘미시사적 추적 연구’는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료적 한계라는 외적 사유와 학술적 문제의식의 빈곤이라는 내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이 점에서 본고의 핵심 텍스트인 조극선의 일기는 知性史 분야의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36년(1609-1635)에 걸친 파노라마적 通時性은 한 세대의 청사진으로 손색이 없고, 또 이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기억 및 기록의 作爲性은 17세기 초반 호서와 서울[京] 사이에 유통했던 지식문화적 흐름의 표본을 적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글에서 착목하는 지식문화인프라는 ‘書冊’과 ‘聞見’이다. 책은 지식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론이 필요치 않다. 주로 談話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견의 경우, 그 대상이 知的 우위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지식문화 정보로서의 가치와 비중은 매우 높다. 즉, 책과 문견은 상보성을 지니면서 한 개인의 지적 성장을 이끄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또 다른 주안점은 책의 획득 경로이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장서목록은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조극선의 ‘家藏書籍’처럼 그 입수 및 流行의 경로가 자세한 것은 많지 않고, 특히 그의 일기는 상속·구매·수증·필사·교환 등으로 대변되는 서책의 획득 양상을 종횡으로 보여주고 있어 개인 장서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의 영역이다. 서책은 개인 및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의 지식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때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극선은 자신이 획득한 책을 얼마나 적극 및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李滉·李珣 그리고 金長生을 조극선의 지적 스펙트럼 속에 대입시켜 학자적 초심, 당쟁이라는 시대적 풍파 속에서 利害를 顧眄하며 현실에 타협해가는 주자학자의 한계와 나약함까지도 주시하고자 한다. ‘학문’과 ‘학자’는 高尚함의 영역에서 착상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과정은 예상 외로 계산적이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불순한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II. 「家藏書籍」을 통해 본 조극선 藏書의 규모와 범주 :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기반

충청도 德山縣 출신인 趙克善은 李命俊(1572-1630)·朴知誠(1573-1635)·趙翼(1579-1655) 등 17세기 기호학계의 석학들을 사사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학행을 인정받아 山林으로 정소되어 내외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¹⁾ 무엇보다 그는 문집 『治谷集』 외 『忍齋日錄』, 『治谷日錄』, 『三官記』 등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특히 『삼관기』는 丁若鏞의 『牧民心書』의 주요 인용 서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그는 17세기 유수의 學者群의 범주에 들 수 있으며, 그가 구축했던 ‘조극선 장서[이하 治谷藏書]’는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적 ‘嗜好’를 이해하는데 큰 시준이 된다.

조극선은 어느 정도의 책을 소장했고, 또 그 규모는 어떠 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조극선이 직접 작성한 「家藏書籍」은 이른바 ‘治谷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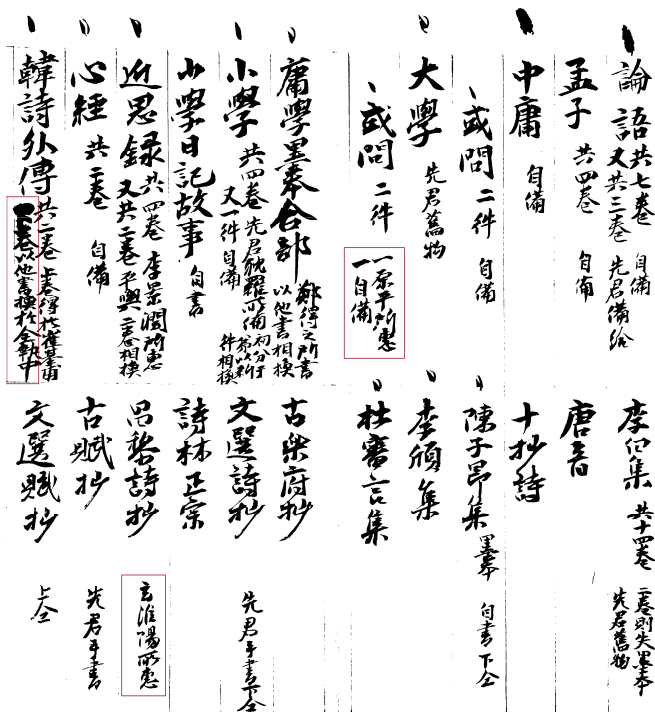
1) 趙克善의 字는 有諸, 號는 治谷, 본관은 漢陽이다. 충청도 德山 출신으로 학문적으로는 畿湖學派, 정치적으로는 西人에 속한 학자형 관료였다. 그의 생애 및 학자 및 관료적 활동상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학수, 「湖西의 知性, 治谷 趙克善」, 『아산의 유학자들』Ⅱ, 지영사, 2009.;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문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 『장서각』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archive]’의 형성 과정 및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된다. 이 목록은 조극선의 친필이며, ‘1656년(丙申)’에李斗陽으로부터 수증한『家禮』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망 직전인 165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易經 共二卷 下經終換時錄第
傳 三卷 鄭玄鳴西卷標經繫辭
書經 共三卷 外家舊物
傳 共九卷 上卷宋卷缺鄭玄之
而惠完後又刻共十卷自備
詩經 共一卷 先君手書
傳 共十卷 以論語卷換換舊
入唐本北何卷堂叔要
周禮 共六卷 甲申九月得於京都
事以宋本以史略七卷相贈
儀禮 共十卷 唐本 甲午換得於
南京戶公確
禮記 共十六卷 自備
春秋 胡氏傳共十卷 自備
孝經 先君高外所備
家語 墨本一册 先君手書
綱目 共七十四卷 備
資治 唐本五卷 鄭玄曰舊物
通鑑 共十五卷 自備
史記列傳 唐本卷 先君舊物
馬史鈔 共三卷 自備
漢書鈔 一卷 缺後換於高貴
史略 共七卷 自備
又初卷件 又改冊三卷
皇明紀略 共三卷 自備
歷代摠目 自備
宋鑑 共十卷 外家舊物

조극선의 ‘家藏書籍’(1)

이에 따르면, 조극선의 ‘治谷藏書’는 총 143종인데, 여기서 복본을 제하면 128종이 된다. 목록에는 책수를 기재한 것과 미기재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505책이고, 수량의 단위를 部·件·本으로 기재한 것과 책 수를 밝히지 않은 것이 79종이다. 후자를 1책으로 환산하면 총 수는 584책이 된다.



조국선의 ‘家藏書籍’(2)

<야곡장서(治谷藏書)의 규모>

종수	143종(복본 15종)
책수	584책(505+ 79)

그렇다면 ‘治谷藏書’의 등급 내지 수준은 어느 범주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유학자 朴世堂(1629-1704) 장서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朴世堂 장서의 규모〉

종수	196종
책수	685책

선행 연구에 따르면, 1688~1689년 경부터 작성된 박세당 장서는 196종 685책이다.²⁾ 주지하다시피 『思辨錄』, 『穡經』 등의 저자인 박세당은 17세기 후반 사상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도서의 입수 및 확보에 대한 관심도 특별했다.

따라서 그가 보유했던 196종 685책은 동시대 학인들의 장서 규모를 상회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박세당보다 한 세대가 앞서는 조극선의 장서가 143종 584책이라는 점은 이른바 ‘야곡장서’의 규모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³⁾

‘야곡장서’는 유학자의 기본 도서인 四書·三經 및 『史記』·『漢書』·『資治通鑑』 등의 경사류를 비롯하여 『唐音』·『昌黎詩抄』·『文選詩抄』 등 문학류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二程全書』·『二程粹語』·『延平問答』·『性理大全』·『朱子大全』·『朱子成書』·『朱子年譜』 등 程朱學 관련 핵심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어 조극선의 知的 외연과 학문적 방향을 가늠하는데 크게 참조가 된다.

2) 손계영, 「朴世堂의 장서목록『家藏書籍』 연구」, 『장서각』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251쪽.

3) 18세기 근기납인계 학자였던 安鼎福의 경우 1776년(65세)에 작성된 冊目에는 105종 219책, 1785년(74세) 冊歷에 작성한 목록에는 264종의 서책이 수록되어 있었다. 조극선과 안정복의 세대간 격차를 고려할 때, ‘治谷藏書’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안정복 집안의 장서, 즉 ‘麗澤齋藏書’는 손자~증손 대인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517종, 2,265책으로 급증하였다(김현영, 「순암 麗澤齋 장서의 형성과 散逸」,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11-12쪽).

性理學
및
禮學

- ◻ 入學圖說(權近)
- ◻ 聖學輯要(李珥)
- ◻ 五先生禮說分類(鄭述)
- ◻ 家禮集覽(金長生)
- ◻ 擊蒙要訣(李珥)
- ◻ 喪祭禮問答(李滉)
- ◻ 喪禮備要(申義慶)

나아가 조극선은 조선조 선유들의 저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다수의 성리학 및 예학 관련 저작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예학 관련 저술은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가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禮說僭疑』·『疑禮問答』 등의 저술은 이런 관심 및 노력의 구체적 결실이었다. 한편 조극선은 조선 선유들의 문집 또한 다수 소장하고 있었고, 계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제가의 족보류를 소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문집의 경우 서인 기호학파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어 그가 추구했던 지적 수렵의 폭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文集類

- ◻ 圃隱集(鄭夢周)
- ◻ 施齋集(趙 惠)
- ◻ 花潭集(徐敬德)
- ◻ 大谷集(成 運)
- ◻ 龜峯集(宋翼弼)
- ◻ 栗谷集(李 珥)
- ◻ 松江集(鄭 澈)
- ◻ 淸江集(李濟臣)
- ◻ 芝川集(黃廷彥)
- ◻ 楊浦集(崔 澱)
- ◻ 西峯集(申 熟)
- ◻ 梅塢集(趙景璉)

위에서 소개한 것이 「家藏書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야곡장서’의 大概이다. 하지만 실제 그가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보유했던 장서는 이 보다 훨씬 방대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그의 일기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지식문화인프라 조성 양상

: 서책의 입수 및 획득 경로를 중심으로

‘야곡장서’는 크게 ①아버지 趙景璉(1565-1639) 및 외가[外祖 李致霖]로부터 물려받은 ‘家傳本’, ②사우 및 지인들로부터 증정을 받은 ‘受贈本’ 및 ③자신이 매입·필사·교환 등의 방식으로 획득한 ‘自備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冶谷藏書의
구성 요소

- ① 家傳本 : 親家 및 外家로부터의 상속
- ② 受贈本 : 師友 및 知人[官人]으로부터의 수증
- ③ 自備本 : 買入·筆寫·交換을 통한 자체적 마련

①이 가문적 배경에 따른 상속적 획득의 성격이 짙다면 ②와 ③은 자신의 노력 및 사회적 입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취적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크다. 세 경로 가운데 ‘受贈本’ 및 ‘自備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조극선의 학자·관료적 위상을 대변한다.

家傳本
(父邊·外邊)

◦書經(外家舊物) ◦書傳(外家舊物) ◦詩經(父親手書) ◦孝經(父親自備) ◦孔子家語(父親手書) ◦通鑑 ◦史記列傳(父親舊物) ◦史略
◦宋鑑(外家舊物) ◦論語(父親備給) ◦大學(父親舊物) ◦李白集(父親舊物) ◦文選詩抄(父親手書) ◦詩林正宗(父親手書) ◦古賦抄(父親手書) ◦文選賦抄(父親手書) ◦西峯集(父親手書) ◦入學圖說(父親舊物) ◦家禮(父親自備) ◦家禮集覽(父親手書) ◦趙咸昌喪禮抄(父親舊物) ◦清江小說(父親舊物)

가전본은 크게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아버지 조경진으로부터 전계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외조 李致霖(1535-未詳)의 手澤本일 가능성이 크다. 이치림은 벼슬이 주부에 그쳤고, 사림 사회에서 크게 명성을 얻은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이치림이 1567년 사마시에서 생원·진사 양시에 입격한 사실은 그의 지적 수준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가 크다.⁴⁾

이와 관련하여 예천 출신의 퇴계문인 權文海(1534-1591)는 이치림이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牛短津’을 노래한 작품은 인구에 회자되는 점을 특기한 바 있다.⁵⁾ 조극선 또한 외조에 대한 학자적 추종의식이 강렬했는데, 부친의 행장에서 외조의 사회적 평판을 특서한⁶⁾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극선의 외가 공주이씨가 일정한 文翰 전통을 유지했고, 그런 맥락에서 축적된 서책을 자녀[2남 4녀] 가운데 학문적 소양이 가장 뛰어났던 2녀서 趙景璫에게 서책의 상당수를 傳與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경진은 집안에 없는 책은 직접 필사하여 소장했을만큼 지식정보에 대한 집착이 컸고, 호학적 기질은 처부 李致霖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⁷⁾ 조극선의 장서에 ‘外家舊物’, 즉 이치림 소장본으로 추정되는 서책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치림→조경진→조극선으로 이어지는 혈통 및 학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치림의 문집이 조경진(壻)·극선(外孫) 부자에 의해 편집·교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⁸⁾

受贈本

◦易傳(鄭士鳴) ◦詩傳(堂叔) ◦資治通鑑(鄭子益) ◦大學或問(元斗杓) ◦近思錄(李汾) ◦韓詩外傳(崔基甫) ◦昌黎詩抄(玄淮陽) ◦朱子大全(元斗杓) ◦朱子成書(尹德殷) ◦花潭集(朴子昂) ◦大谷集(朴由寬) ◦淸江集(李顯基) ◦芝川集(李厚培) ◦玄軒和陶詩(李善長) ◦聖學輯要(黃一皓) ◦家禮(李斗陽) ◦家禮儀節(李叔平) ◦五先生禮說(李斗陽) ◦玄殷山家禮(玄淮陽) ◦臘藥證治(申得一)

4) 조극선의 기록에 따르면, 이치림은 定山 출신의 任濯 등 일부 門人을 육성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어렵다(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4月 8日>).

5) 權文海, 『草澗集』 卷4 <雜記>.

6) 趙克善, 『治谷集』 卷6, <先考梅塢處土府君行狀>.

7) 趙克善, 『治谷集』 卷6, <先考梅塢處土府君行狀>.

8) 趙克善, 『忍齋日錄』 <1614年 1月 7日>; <14年 3月 6日>;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9月 19日>.

‘수증본’은 20종에 이르는데, 사우들로부터 증정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증정인 중에는 元斗杓·朴由寬·李顯基·李厚培·黃一皓·李斗陽 등 학연으로 연결된 인물도 있고, 申得一과 같이 중인 신분의 醫官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원두표의 경우 『大學或問』과 74권에 달하는 『朱子大全』 한 질을 증정하는 호의를 보였다. 원두표(1593-1664)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靖社功臣(2등)에 녹훈되고 原平府院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는 훈공을 바탕으로 인조정권의 실세로 부각되어 原黨의 영수로 일컬어졌으며, 벼슬은 좌의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극선과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호의를 베푼 것은 두 사람이 朴知誠의 ‘潛治門下’ 동문이었기 때문이다. 『야곡일록』에 따르면, 원두표는 공무 또는 사적으로 조극선과 자주 회동했고, 조극선 또한 誣告 사건에 연루된 원두표 일가를 위문하는⁹⁾ 등 돈독한 관계를 지속했다.

조극선에게 증정한 『朱子大全』은 원두표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1635년(인조13) 4월에 간행한 것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의 여파로 서책이 산실되어 학술 및 교육인프라의 붕괴를 우려하여 1634년 12월 朱子學 학습의 본원적 텍스트인 『주자대전』의 간행에 착수, 약 5개월의 공정을 거쳐 완간하게 된다.¹⁰⁾

당시 간역의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원두표가 간행 직후 御覽用(國王) 여섯 권, 睿覽用(世子) 두 권 및 홍문관·시강원에 각 한 권을 진상한 사실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인쇄 및 粧綴하여 여섯 권을 올려 보내 乙夜에 성상께서 보실 것에 대비하도록 하고, 또 두 권을 올려 동궁이 덕을 향상시키는工具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각 한 권을 옥당과 春坊에 나누어 보내 儒臣이 토론하고 군주를 보좌, 인도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¹¹⁾

9) 趙克善, 『治谷日錄』 <1629年 1月 3日>. 무고에 연루된 元斗樞는 원두표의 아우이다.

아들이 없었던 원두추는 원두표의 차자 元萬重을 입양하여 가통을 이었다.

10) 『承政院日記』 <仁祖 13年 4月 24日(癸卯)>.

11) 『承政院日記』 <仁祖 13年 4月 24日(癸卯)>.

홍문관 및 세자시강원을 제외한 다른 관서에는 반질이 쉽지 않았을 정도로 간본에 여유가 없었던 책을 조극선에게 증정한 것이었다. 그 실상은 조극선의 장서목록 ‘家藏書籍’의 『朱子大全』 하단에 기재된 ‘전라감사 원평군 증정[湖伯原平君所惠]’이란 부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成運의 『大谷集』을 증정한 朴由寬은 박지계의 종질로 그 또한 잠야문하의 동문이었다. 조극선이 박유관과 처음 상견한 것은 1625년(인조3) 12월 趙翼의 집에서였고,¹²⁾ 이후 두 사람은 긴밀한 교계를 유지했는데, 『대곡집』 증정은 그런 관계성의 구체적 자취였다. 박유관이 『대곡집』을 증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의 관직이 보은현감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보낸 것은 成運의 처질이자 양자였던 金可幾(1537-1597)가 편집하고, 그 아들인 金德民(1570-1651 ; 尹鑄의 外祖)이 柳根(1549-1627)의 서문을 받아 1603년(선조36) 보은에서 간행한 『대곡집』 초간본으로¹³⁾ 이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책이었다.

李濟臣(1536-1584)의 『淸江集』은 조극선의 학문연원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15세 때 사사했고, 박지계·조익과 함께 三師로 일컬어지며, 조극선의 학자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명준의¹⁴⁾ 아버지가 『청강집』의 저자 이제신이다.¹⁵⁾ 조극선이 이현기로부터 증정받은 『청강집』은 1610년(광해군2) 이명준이 덕산현감 재임시에 간행한 초간본이며¹⁶⁾, 그 책판은 덕산 인근의 高山에 장판되어 있었다.¹⁷⁾ 조극선은 ‘家

12) 趙克善, 『治谷日錄』 <1625年 12月 30日>.

13) 柳根, 『西垞集』 卷6, <大谷集序>.

14) 이명준과 조극선의 사제관계에 대해서는,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숨김과 드러냄’-」, 『장서각』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참조.

15) 조극선이 아버지 趙景璫으로부터 전계받은 『淸江小說』의 저자 또한 李濟臣이다. 이제신은 曹植에게 수학하여 학문적으로 南冥學派에 속했다. 『德川師友淵源錄』 「師友門人」 <李濟臣>에 따르면, 이제신은 曹植으로부터 자질을 인정받았고(公來拜先生先生期以遠大), 晉州牧使 재임 때는 치제했을만큼 소식에 대한 사문의식이 높았다(曹植, 『南冥集』 卷3, 附錄 <祭文(晉州牧使李濟臣)>).

16) 李恒福, 『白沙集』 卷2, <淸江集序>. ; 申欽, 『象村集』 卷38, <淸江集跋>.

17) 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5月 28日>.

藏書籍'에서 『청강집』의 입수 경로에 대해 ‘李士揚(李顯基의 字) 증정[李士揚所惠]’이라 하여 이명준의 아들로 潛窩門下の 동문 이현기가 증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강집』은 1610년에 初刊되었는데, 당시만해도 연소한데다 학문적 인지도가 높지 못했던 조극선에게 반질되기는 어려웠다. 이후 그는 이 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고, 마침내 1625년(인조3) 5월 30일 이현기로부터 증정을 받게 되는데, 『야곡일록』에 그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625년 5월 30일. 잠와선생[李命俊]께 올리는 편지를 李士揚(李顯基) 편에 부치면서 세 권 분량의 『淸江集』을 구득했다.¹⁸⁾

이로써 그는 초간된 지 15년만에 비로소 『청강집』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黃廷彧(1532-1607)의 『芝川集』 증정자는 李厚培(1594-1651)인데, 그는 조극선이 1624년부터 동몽교관으로 재직하면서 긴밀하게 교유했던 인물이다.¹⁹⁾ 『지천집』은 정사공신으로 효종조에는 우의정에까지 오른 李厚源(1598-1660)이 1632년(인조10)에 간행한 것이다.²⁰⁾ 이후배는 이후원의 형이었고, 이들 형제는 황정옥의 외손자였다. 사우를 통해 그 외조의 문집을 구한 것인데, 조극선은 자신의 일기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²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천집』의 공식 간행 연도는 1632년이다. 그런데 조극선은 이보다 6년이 앞서는 1626년(인조4)에 『지천집』을 획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천집』 간행 시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이의 『聖學輯要』는 黃一皓(1588-1641)의 증정본인데, 황일호는 成渾·李珥의 문인 黃愼(1562-1617)의 아들이다. 이 책은 차람의 장기화가

18) 趙克善, 『治谷日錄』 <1625년 5월 30日>.

19) 趙克善, 『治谷日錄』 <1626년 3월 2日>.

20) 張維, 『谿谷集』 卷6, <芝川集序>.

21) 趙克善, 『治谷日錄』 <1626년 7월 3日>.

증정으로 귀결된 것인데, 그 바탕에는 조극선의 학자적 성취를 바라는 사우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²²⁾

황일호가 운봉현감에 임명된 것은 1624년이므로 반환이 지연된 것은 약 4년이었지만 조극선은 그것을 못내 미안하게 여겼고, 황일호는 망각을 빙자하여 상대의 송구함을 덜어준 물론 증정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家藏書籍’의 『聖學輯要』 항목에 ‘未還’ 또는 ‘未返’이 아닌 ‘황익취 증정[黃翼就所惠]’으로 기재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13년 뒤인 1641년 황일호는 청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는데,²³⁾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극선의 『治谷集』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 또는 제문이 보이지 않는다.

증정을 받은 여러 서책 가운데 평소 애장 욕구가 가장 컸던 것은 영남의 학자 鄭述(1543-1620)의 예학 저술 『五先生禮說』이었다. 이 책은 정구의 문인 李潤雨(1569-1634)가 담양부사에 재직하던 1629년(인조7) 6월 임지에서 발간했고,²⁴⁾ 간행과 동시에 예학에 조예를 지닌 학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후일 예학 관련 저술을 남기게 되는 조극선 또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²⁵⁾ 이런 상황에서 해당 책자를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운봉현감 李斗陽이었다. 이두양은 조극선이 어릴 때 수학했던 李榮元의 아들로 조극선과는 이명준·박지계·조익 문하의 동문이었다. 조극선이 『五先生禮說』의 개간 사실을 인지한 것은 1630년(인조8) 5월 3일 이두양의 편지를 받고서였다. 이 편지에서 이두양은 박지계에게는 이미 『五先生禮說』 한 질을 송부했고, 조극선에게도 조만간 인출하여 送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630년 5월 3일. 이날 운봉현감 李伯瞻(李斗陽)이 편지를 보내왔다. ... 편지 말미에 ‘오선생예설을 담양에서 개간했는데, 형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22) 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4月 23日>.

23) 『仁祖實錄』 <仁祖 19年 11月 9日(辛巳)>.

24) 李潤雨, 『石潭集』 卷3, <五先生禮說跋>.

25) 조극선의 예학 관련 저술로는 『禮說僭擬』(『治谷集』 別集) 및 『疑禮問答』이 있다.

구해보고자 할 것이므로 내가 형을 위해 인출하여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막 간행되었을 때 趙汝厚가 인출하여 潛治先生(朴知誠)께는 보내드렸습니다.’고 했다.²⁶⁾

이두양으로부터 편지를 받던 그날, 다른 경로를 통해 책을 먼저 입수한 李義吉이란 인물이 방문하여 조극선의 심사를 자극하게 된다. 이 때 조극선은 평소 ‘請託文字’를 기휘시켰던 자신의 소신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인으로서의 약삭스런 자존감의 표현으로 읽힌다.²⁷⁾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동년 12월 8일 운봉현감 이두양은 筆·墨·紙를 동봉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최근에 인출한 『五先生禮說』(7책)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⁸⁾ 이두양은 士友와의 약속을 지켰고, 조극선은 ‘가장 서적’에 ‘오선생예설’은 모두 7권이며, 운봉현감 이백침이 증정함[五先生禮說 共七卷 雲峯縣監 李伯瞻所惠]’이라고 적고 있다. 아래는 그 이튿날인 1630년 12월 9일자 일기인데, 책을 보내준 이두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다.²⁹⁾

한편 조극선은 두 종의 의학 관련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東醫寶鑑』은 ‘自備本’이고, 『臘藥證治』는 ‘受贈本’이다.

醫學類

- 東醫寶鑑 : 自備本
- 臘藥證治 : 受贈本

『臘藥證治』의 증정자는 申得一인데, 그는 광해조에는 內醫院正, 인조조에는 御醫의 지위에까지 오른 의관이었다. 그는 의학적 지식에도 해박하여 1608년에는 醫書[東醫寶鑑으로 추정]의 감역관으로 활동했고,³⁰⁾ 1626년(인조4)에는 인조가 仁城君의 특진 임무를 맡기는 등 의관으로서

26)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5月 3日>.

27)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5月 3日>.

28)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12月 8日>.

29)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5月 9日>.

30) 『光海君日記』 <光海君 卽位年 10月 26日(庚辰)>.

서 물러난 1633년(인조11)까지 약 7년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극선은 신필현의 집을 임시 거처로 借用했고,³⁴⁾ 『東國兵鑑』 등의 서적을 빌리기도 했으며,³⁵⁾ 1633년 歲初에는 음식 대접을 받는다³⁶⁾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臘藥證治』의 증정도 이런 유대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학자였음에도 醫藥 및 地理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던³⁷⁾ 조극선의 지적 영역의 확대 과정이기도 했다.

自備本 [買入]	◦書傳 ◦禮記 ◦春秋(胡氏傳) ◦馬史抄 ◦史略 ◦皇明紀略 ◦歷代摠目 ◦論語 ◦孟子 ◦中庸 ◦中庸或問 ◦大學或問 ◦小學 ◦心經 ◦性理大全 ◦二程全書 ◦二程封事 ◦朱子書節要 ◦朱子年譜 ◦延平問答 ◦呂氏鄉約 ◦三經釋義 ◦四 書釋義 ◦圃隱集 ◦栗谷集 ◦龜峯集 ◦松江集 ◦楊浦集 ◦四七往復書 ◦喪祭 禮問答 ◦喪禮備要 ◦己卯錄 ◦石潭遺事 ◦東醫寶鑑 ◦正俗 ◦三韻通考																						
自備本 [筆寫]	◦小學日記故事 ◦陳子昂集 ◦李頎集 ◦杜審言集 ◦古樂府抄 ◦施齋集 ◦擊蒙要訣 ◦喪祭禮問答																						
自備本 [換得]	<table border="0"> <tr> <td>◦詩傳：崔基甫와 교환</td><td>__교환도서：論語(7권)</td></tr> <tr> <td>◦周禮：李都事와 교환</td><td>__교환도서：史略(7권)</td></tr> <tr> <td>◦儀禮：尹確과 교환</td><td>__교환도서：미상</td></tr> <tr> <td>◦漢書抄：玄而實과 교환</td><td>__교환물：故紙</td></tr> <tr> <td>◦庸學合部：鄭得之와 교환</td><td>__교환도서：미상</td></tr> <tr> <td>◦小學：아우 兼善과 상환</td><td>__교환도서：小學</td></tr> <tr> <td>◦近思錄：교환자 미상</td><td>__교환도서：平輿</td></tr> <tr> <td>◦二程粹語：金國卿과 교환</td><td>__교환도서：杜詩抄</td></tr> <tr> <td>◦朱子感興詩：印而挺과 교환</td><td>__교환도서：史略</td></tr> <tr> <td>◦伊洛淵源錄：鄭得之와 교환</td><td>__교환도서：唐音(9권)</td></tr> <tr> <td>◦禮部韻：鄭士鳴과 교환</td><td>__교환물：紙</td></tr> </table>	◦詩傳：崔基甫와 교환	__교환도서：論語(7권)	◦周禮：李都事와 교환	__교환도서：史略(7권)	◦儀禮：尹確과 교환	__교환도서：미상	◦漢書抄：玄而實과 교환	__교환물：故紙	◦庸學合部：鄭得之와 교환	__교환도서：미상	◦小學：아우 兼善과 상환	__교환도서：小學	◦近思錄：교환자 미상	__교환도서：平輿	◦二程粹語：金國卿과 교환	__교환도서：杜詩抄	◦朱子感興詩：印而挺과 교환	__교환도서：史略	◦伊洛淵源錄：鄭得之와 교환	__교환도서：唐音(9권)	◦禮部韻：鄭士鳴과 교환	__교환물：紙
◦詩傳：崔基甫와 교환	__교환도서：論語(7권)																						
◦周禮：李都事와 교환	__교환도서：史略(7권)																						
◦儀禮：尹確과 교환	__교환도서：미상																						
◦漢書抄：玄而實과 교환	__교환물：故紙																						
◦庸學合部：鄭得之와 교환	__교환도서：미상																						
◦小學：아우 兼善과 상환	__교환도서：小學																						
◦近思錄：교환자 미상	__교환도서：平輿																						
◦二程粹語：金國卿과 교환	__교환도서：杜詩抄																						
◦朱子感興詩：印而挺과 교환	__교환도서：史略																						
◦伊洛淵源錄：鄭得之와 교환	__교환도서：唐音(9권)																						
◦禮部韻：鄭士鳴과 교환	__교환물：紙																						

34) 趙克善, 『治谷日錄』 <1626年 11月 16日>.

35) 趙克善, 『治谷日錄』 <1626年 12月 1日>.

36) 趙克善, 『治谷日錄』 <1633年 1月 2日>.

37) 趙克善, 『治谷集』 卷10, 「三官記」 <目官>.

‘야곡장서’ 가운데 교환을 통해 획득한 ‘換得本’은 대략 11종으로 파악된다. 교환은 필연적으로 등가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상 서책의 가치를 진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서책의 교환이 갖는 지식문화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특징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周禮』(6권)의 경우는 1644년 9월 李都事에게 빌려 장기 열람하다가 11년이 경과한 1655년(효종6) 『史略』(7권)과 교환한 것이며, 『小學』(4권)은 부친 조경진이 제주에서 구비했다가³⁸⁾ 차자 趙兼善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극선은 新件 『소학』과 교환하였는데, 이는 부친의 手澤本에 대한 애착으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 『二程粹語』(4권)는 金國卿(金楨)에게 『杜詩抄』를 주고 교환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인재일록』에 그 경위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620년 3월 17일. 또 金楨의 답서를 받았다. 전에 그가 가진 『二程粹語』 네 권과 나의 『杜詩抄集』을 서로 바꾸기로 한 까닭에 내가 어제 두서 5언과 7언을 아울러 280여 수를 책자에 베껴두고 보냈다.³⁹⁾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교환하는 도서는 寫本을 남겨두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위 ‘換得本’ 목록과는 별개로 『인재일록』에는 책의 교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더러 보인다.

1620년 3월 29일. 『中庸』을 鄭時伯에게 써 보내 『韓碑』 상·하권을 바꾸어 얻었고, 다시 『한비』를 閔子必(閔祺壽)에게 배 한 필 가격으로 약속하고 팔았으나, 자필이 南陽에 장가간 후 閔丈(閔弘俊)이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다.⁴⁰⁾

38) 조경진은 집안 매부인 玄楫(1613년 2월부터 1616년 4월까지 재임)의 제주목사 재임기인 1615년 6월부터 동년 9월 27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제주에 체류한 바 있다(趙克善, 『忍齋日錄』 卷6, <先考梅塢處士府君行狀>).

39)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3月 17日>.

40)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5月 24日>.

위 인용문은 교환한 책을 타인에게 되파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책이 일종의 財貨로서의 효용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IV. 지식 및 학술정보로서의 聞見

：師友談論을 통한 聞見의 수렴과 정제

지식은 책이라는 매체 외에 다양한 수단과 방식을 통해 획득, 전파되는 속성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학문적 일상에서 사우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談論이었다. 담론에서의 화제는 학문과 時事를 망라했고, 고금의 인물에 대한 논평, 즉 論人是 빠지지 않는 소재였다. 여기서의 사우담론이 조극선의 지적 역량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착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 균형 및 검증성이다. 조극선은 학파 및 정파의 구분이 엄격했던 당쟁시대의 한복판에 존재했던 인물인 바, 지적 균형감 여부는 그의 학자적 좌표를 규정하는 핵심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조극선에게는 李榮元·李命俊·朴知誠·趙翼 등 모두 네 명의 ‘師’와 그들과의 학연에서 확장, 파생된 광범위한 규모의 ‘士友集團’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들을 ‘師’와 ‘友’로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聽講과 質疑를 통한 문건의 수렴 : ‘師’

앞에서 조극선의 ‘師’를 李榮元·李命俊·朴知誠·趙翼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영원의 경우 15세 이전의 蒙學의 성격이 컸고, 무엇보다 조극선 자신이 師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영원의 관계성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명준·박지계·조익은 모두 서인 기호학파에 속하고 조극선의 스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학자적 성향과 현실 인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이명준은 관료적 체질 위에서

牛溪學統을 표방했다면, 박지계는 학자적 토대 위에서 우계·율곡 두 학통의 접점에 존재하였으며, 조익은 학자 및 관료 양면적 측면에서 李珥[栗谷學]에 대한 추종의식을 강렬하게 표명했던 것이다. 학문·시사 담론 및 論人에 있어 세 사람의 견해가 일정한 결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었다.

1) 李命俊 : 牛溪 우호론적 문건

조극선이 이명준을 사사한 것은 15세 때인 1609년(광해군1)이었다. 당시만해도 조극선은 연소한 유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관계는 하향 및 주입식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談論’이라고 할만한 대화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613년(광해군5) 이명준은 庶弟(李耕俊)의 역모에 연루되어 영덕에 유배되었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616년 10월 조극선은 스승을 위문하기 위해 적소를 방문하게 된다. 당시 조극선의 나이는 성년 유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22세였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제 同話의 자리에서 조극선이 던진 질문은 咸渾과 李珥의 우열론이었다. 이것은 우연한 질문이기보다는 평소의 궁금함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설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명준의 ‘牛栗觀’은 조극선 자신의 학문 연원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었었던만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이명준의 답변은 다소 웅색해 보인다. 그는 우계문인으로 성혼을 존신하는 입장에 있었지만⁴¹⁾ 이이의 학문적 秀越性を 부정할 수는 없었던 바, ‘老年彌篤論’이라는 다소 모호한 논리를 통해 성혼을 변호했던 것이다.⁴²⁾

이처럼 그 논리는 모호했지만 이 대화를 통해 조극선은 이명준이 ‘우

41) 金尙憲은 李命俊 신도비명에서 “長游牛溪成先生門下 學有師法 稟性剛正”이라 하여 우계계승의식을 특정한 바 있다(金尙憲, 『淸陰集』 卷24, <行司諫院大司諫李公神道碑銘 并序>).

42)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10月 16日>.

계학통'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극선 평소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영남학인'에 대한 師門의 인식이었다. '퇴계학'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로서는 '退溪後學'에 대한 스승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 관심은 주로 鄭述(1543-1620)·張顯光(1554-1637)·鄭經世(1563-1633)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질문은 이명준은 물론 박지계·조익에게도 공통적으로 표출되었다.

정구·장현광·정경세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극선이 17세기 초반 영남학계의 판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퇴계학은 예안·안동 등 영남의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되었으나 조목(1606)·류성룡(1607) 등 퇴문고제들의 사후에는 상주(鄭經世)·인동(張顯光)·성주권(鄭述)으로 그 중심점이 이행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인조반정을 전후한 시기에 영남학계의 영수로 등장한 인물이 곧 이들 세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구·장현광·정경세에 대한 이명준의 인식은 매우 비판적이다. 우선 정구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가 역력하다. 이명준이 퇴계·남명문화의 고제로서 『心經發揮』, 『五先生禮說』 등의 저술을 남긴 정구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음에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구를 포함한 퇴계학[嶺南學] 전반에 대한 부정 내지 폄훼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624년 4월 5일. 선생께서 또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말하는 寒岡先生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고 하셨다.⁴³⁾

이런 인식은 장현광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 인용문은 인품의 미흡성을 들어 장현광을 欠評하고 있는데,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배격성이다. 나아가 그는 '山林無效論'까지 언급하며 장현광을 조소·비난했던 것이다.⁴⁴⁾

정경세에 대한 이명준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경세에게서 같은

43) 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4月 5日>.

44) 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1月 25日>; 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4月 5日>.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同官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반정 이후 廢世子(光海君의 아들 李祹)의 처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정경세를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奸詐한 인간’으로 단정했다.⁴⁵⁾ 이는 이명준에게 정경세는 학인이 아닌 ‘간사한 정치 관료’로 강렬하게 착상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구·장현광·정경세에 대한 이명준의 인식은 조소 및 비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조극선의 생각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할 박지계·조익의 입장과도 결을 달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조극선은 『오선생예설』의 획득 및 학습을 열망하는 등 정구의 예학에 관심이 컸고, 장현광에 대해서는 ‘先生이라 칭할[稱先生]’ 정도로 학자로서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 조극선은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학문 및 현실 인식에 있어 3사의 주장과 생각이 획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극선은 3사로부터의 문견을 취사하며 자신의 학자·관료적 좌표를 설정해나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3사 가운데 누구와 가장 근접하게 형상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조극선 개인의 성향 진단을 넘어 17세기 지식인의 자기 정체 확립 과정의 해명이란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 朴知誠 : 牛溪·栗谷 절충론적 문견

조극선이 박지계의 잠야문하에 입문한 것은 1618년(광해군10) 윤4월 22일이었다. 후술할 조익과 마찬가지로 잠야문하 입문은 이명준의 권유 및 추천에 의한 것이었고,⁴⁶⁾ 이후 그는 1635년 박지계가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사제관계를 지속했다.

박지계는 서인 기호학과에 속하는 학자임은 분명하지만 뚜렷한 사승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조부 朴世茂가 『童蒙先習』의 저자라는

45) 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1月 25日>.

46) 김학수, 앞의 논문(2017), 32~33쪽.

점에서 家學 전통이 강고했고, 처부 李惟侃(1550-1634)이 花潭學統이란 사실은⁴⁷⁾ 그의 학문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는 우계·율곡학과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았고, 인조 초반 元宗追崇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⁴⁸⁾ 金長生 등 율곡학과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박지계는 예학에 있어 김장생과 함께 당대 최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고, 조극선 또한 예학에 관심이 매우 컸던 만큼 두 사람의 사제관계는 학문적 상합성도 매우 높았다. 공교롭게도 박지계와 조익은 조극선의 세거지 덕산 인근에 우거하며 저술 및 후진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극선은 두 문하를 동시에 출입함으로써 양자의 同異性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은 그 체감의 문자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실성이 매우 높은 정보라 할 수 있다.

조극선이 박지계에게서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朱子認識’이었다. 이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는 주자의 장구를 고친 『大學困得』을 거론하며 의문을 표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박지계의 태도는 자못 단호하다.

1618년 5월 24일. 또 내가 물기를, “朱子는 한평생 『대학』에 전심하여 아주 작은 차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趙修撰(趙翼)이 지은 『大學困得』을 보았는데 朱子章句와 같지 않은 부분이 매우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조 수찬이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예전부터 주자를 모두 믿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었다. 공자와 맹자 이후로 주자 같은 분은 없었다. 諸家の 학설이 같고 다른 점이 있지만 주자가 논한 한 글자 한 마디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다. 공자와 주자의 도는 천지와 병립하는데, 후대의 유자들이 주자를 알지 못하여 더러 그의 설을 믿지 못하니 나는 이를 매우 걱정스럽게 여긴다.”고 하셨다.⁴⁹⁾

즉, 박지계는 조익을 ‘쉽게 얻기 어려운[不易得]’ 인재로 평가하면서도 주자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숨기

47) 花潭學統에 대해서는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 일지사, 2000, 참조.

48)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49)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5月 24日>.

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618년 10월 閔祺壽를 통해 조익의 또 다른 저작을 입수했을 때 마땅찮은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⁵⁰⁾

주자학에 대한 존신론은 다음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극선이 예학 공부의 입문서로 김광필의 『家範』, 김종직의 『彝尊錄』, 이언적의 『奉先雜儀』, 이이의 『擊蒙要訣』을 언급하자 단호한 어조로 『朱子家禮』 학습을 선행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⁵¹⁾

그렇다면 박지계는 성혼·이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는 이이와 성혼의 理氣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619년 8월 2일. 栗谷과 牛溪가 理氣에 대해 분변한 것을 강론하였다. 말하기를, ‘우계의 말은 간약하되 다 갖추지 못하였고, 율곡의 말은 放曠하되 여러 방면으로 통하니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였다.⁵²⁾

위 인용문에서처럼 그는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그의 학문적 지론에 바탕하는 견해였지만 이를 통해 조극선은 박지계가 이이와는 학문적 거리감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었다.

이제 논인의 영역으로 화제를 전환해보기로 한다. 먼저 박지계는 李彦迪에 대해 냉소적 시선이 역력하다. 물론 이언적을 직접적으로 폄훼하지는 않았지만 조극선의 『奉先雜儀』 학습 및 傳寫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것은 학문적 거부감의 우회적 표현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1619년 3월 13일. 또 『奉先雜儀』를 얻어 傳寫할 것을 청하니, ‘이것은 급하지 않은 일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장차 사람을 시켜 전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생이 ‘제 자신이 모름지기 刻苦勉勵하고 스스로 힘써야지, 한 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⁵³⁾

50)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0月 1日>.

51)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5月 24日>.

52)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8月 2日>.

박지계가 『봉선잡의』를 사실상 부정했던 것은 ‘高祖를 제사하지 않는다[不祭高祖]’는 조항 때문이었고, 그 바탕에는 주자 『가례』와의 相差性에 대한 불만감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박지계는 16세기 조선의 行禮를 17세기 주자학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극선은 출처관을 화두로 삼아 선유 및 당대 석학들의 학행 그리고 출처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박지계의 답변은 간명했지만 거기에는 엄정한 포폄의식이 투영되어 있었다. 먼저 盧守愼(1515-1590)에 대해서는 이황에 버금가는 명망을 지녔던 학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배 이후 대신의 반열에 올라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晩節을 손상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성균관의 기강을 바로잡은 엄정성에는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⁵⁴⁾

晩節의 훼손을 꼬집으면서도 관료적 기풍을 높이 평가하며 우호적 인식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것의 사실성에 더해 부친 朴應立과 노수신의 긴밀했던 교제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⁵⁵⁾

그럼에도 그는 노수신의 ‘夙興夜寐箴註解’에 대해서는 혹평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자학적 자기 정체성의 환기 및 천명처럼 들린다.

1619년 6월 2일. 묻기를, ‘그가 「夙興夜寐箴」에 단 註는 어떻습니까?’ 하니, 말하기를, ‘이와 같은 주는 비록 없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⁵⁶⁾

한편 박지계의 ‘南冥觀’은 예상 외로 우호적이다. 조식은 생전에 이미 이황과 불편한 관계를 수반한 바 있고, 오현의 문묘종사 과정에서 정인홍이 ‘晦退論斥’을 단행함으로써 ‘曹植=鄭仁弘의 스승’이라는 부정적 등식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박지계 또한 이 점을 수용하면서도 조식과 정인홍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節義’ 차원에서 그 존재

53)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3月 13日>.

54)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6月 2日>.

55) 朴知誠, 『潛治集』 卷6, <先父君墓碣> “盧穌齋守愼 位台鼎 許草堂曄 任亞銓 皆深知府君 兼採時望 欲以府君爲臺閣 時議之不悅者沮止之”

56)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6月 2日>.

성을 인정하고 있다.⁵⁷⁾

이제 질문은 死者[古人]에서 生者[今人] 쪽으로 옮겨간다. 조극선은 단도직입적으로 정구와 장현광의 우열을 질문한다. 당시 둘 다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박지계는 직설을 피하는 대신 한강고제 徐思遠(1550-1615)의⁵⁸⁾ 주장을 인용하여 답변에 가름한다. 평가가 분명치는 않지만 ‘學’의 영역에서는 정구를, ‘德’의 범주에서는 장현광을 우월하게 여겼음을 간파할 수 있다.⁵⁹⁾

여기서의 주안점은 답변보다 질문에 있다. 조극선의 질문에는 장현광에 대한 경모의식이 개재되어 있었지만 박지계는 단언을 회피했던 것이다. 다만, 정구·장현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극론과 펴뒀던 주저함이 없었던 이명준과는 달리 박지계의 언급에는 과도한 ‘褒’는 없었지만 지나친 ‘貶’도 드러나지 않았다. 두 師의 엇갈린 평가는 조극선에게 냉철한 取舍의 과제로 남게 된다.⁶⁰⁾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1619년(광해군11) 8월 2일 조극선은 박지계를 만난 자리에서 고금의 論人談을 이어간다. 이날의 화제는 徐敬德(1489-1546)과 金安國(1478-1543) 그리고 趙翼이었다.

1619년 8월 2일. 나 극선이 『花潭集』을 올리며 徐先生(徐敬德)의 학문이 어떠

57)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6月 2日>.

58) 대구 출신으로 유년기에 蔡應麟·全慶昌·鄭師哲을 통해 수학했던 서사원은 28세 때인 1577년부터 鄭述를 사사했다. 서사원의 한강문화 입문은 한강학의 대구지역 확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그는 伊川精舍에서 강학하며 문인을 양성했는데, 최소 50여명에 이르는 그의 문인은 대구·칠곡·성주·인동 등 주로 낙동강 중류지역에 분포하였다(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50~51쪽).

59)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6月 2日>.

60) 이와 관련하여 조극선이 張顯光 집안에서 考位의 제사 때는 考妣位를 함께 제사하고, 妣位 제사 때는 竝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장현광 예법에 적극 찬동했다(趙克善, 『治谷集』 卷8, <耳官(上)>).

한지 물었다. 선생이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화담집』의 내용을 가리키며 慕齋(金安國)에 대해 물으니, 선생이 ‘문장이 학문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였다.⁶¹⁾

서경덕의 학행에 대한 詳論은 생략한 채 ‘쉽게 얻기 어려운 인재’로 평한 본의는 분명치 않지만 서경덕을 뛰어난 학자로 인정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박지계의 처부 이유간이 徐敬德⇨閔純(1519-1591)으로 이어지는 화담학통의 계승자라는 점은⁶²⁾ 위의 인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김안국에 대해서는 비록 직설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박지계에게 김안국은 한갓 뛰어난 ‘文章家’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김안국의 학자적 존재성을 폄하했고, 그것이 조극선의 ‘慕齋觀’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보다 1년 전인 1618년 6월 조극선은 다소 무거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박지계를 긴장시킨 적이 있었다. 湖西[沔川] 출신의 ‘퇴계계승론자’ 秦義堅(1543-未詳)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조극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진의견이 퇴계학에 공력을 쏟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진의견에 대한 박지계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1618년 6월 19일. 내가 말하기를, ‘생원 秦義堅이 만년에 沔川(沔川 ; 현재의 唐津)에 살았는데 그의 집에 退溪가 訓釋한 『近思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가 일찍이 秦公의 사람됨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사람됨이 어떠하냐고 물으니, 선생이 ‘진공은 만년에도 학문을 지향했던 사람이다. 갑오(1594), 을미년(1595) 무렵 대구 사람 徐思遠이 淸安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道로 학자들을 권면하였는데, 진공이 예전에 忠州와 槐山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가르침을 받아 학문을 하는 방도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⁶³⁾

박지계의 설명에 따르면, 진의견은 李滉⇨鄭述⇨徐思遠으로 이어지는

61)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8月 2日>.

62)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 일지사, 2000, 238~241쪽.

63)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6月 19日>.

영남학통을 이었고,⁶⁴⁾ 만년까지 학업에 전념했던 好學人이었다.⁶⁵⁾ 따라서 그는 호서지역에서는 드물게 퇴계학 계통의 학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조극선의 본질적인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신의 학문적 행보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조는 전에 없이 엄정했다. 즉, 조극선은 진의견이 만년 거처인 면천에서 비방을 듣고 죽은 것이 퇴계학에 대한 거부감이 그를 옥죄 것으로 파악했고, 그런 풍토의 부당성을 박지계에게 항변했던 것이다.⁶⁶⁾

조극선의 항변에 대한 박지계의 답변은 본질을 빗겨났고, 그것은 퇴계학에 대한 거부감의 우회적 표현으로 읽힌다. 후술하겠지만 조극선은 이황을 現夢한 뒤 그 경모의 마음을 시로 표출하고, 『退溪集』, 『朱子書節要』, 『喪祭禮答問』 등 이황 관련 다수의 저작을 애독하는 등 퇴계학에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점에서 그는 진의견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질문의 어조가 전에 없이 집요했던 것이다.

조극선은 이언적·노수신·서경덕·김안국·조식·정구·장현광에 대한 박지계의 호평 또는 비판과 무관하게 이들의 문집 또는 행장을 소장·차람·필사하며 학문의 외연을 확장하게 된다. 특히 그는 정구의 예서 『오선생예설』의 소장을 열망했고, 장현광의 동정을 주시하며 그와 관련된 문건을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했을만큼 영남 지식인 집단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3) 趙翼 : 율곡존신론적 문건

조극선(1595-1658)의 三師 가운데 역사적 시간을 가장 길게 공유한

64) 서사원은 자신의 스승 鄭述에게 진의견을 소개했을만큼 학문과 행의에 있어 그를 매우 신뢰했다(鄭述, 『寒岡集』 卷3, <答徐行甫>(癸卯)). 진의견은 서사원보다 7세 연장자였음에도 서사원에게 請業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65) 서사원은 淸安縣監으로서 陰城縣監을 겸임할 때 진의견을 조정에 천거한 바 있다. 당시 薦目은 ‘자질의 총명함’, ‘律學과 兵書에 대한 해박함’, ‘間斷없는 好學의 자세’,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向學열’로 요약된다(徐思遠, 『樂齋集』 卷7, <兼任陰城時薦人題目>). 사마방목(1567)에 기록된 진의견의 거주지는 忠州이다.

66)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6月 19日>.

인물은 조익(1579-1655)이었다. 두 사람의 연령차는 17년이지만 졸년의 차이는 3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조극선은 1618년(광해군10) 11월 2일에 급문한 이후 약 35년 동안 조익과 사제의 연을 지속함으로써 담론의 기회가 많았고, 문건의 범위 또한 매우 넓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10촌의 척분까지 있어 대화에 있어 격의가 없어 보였다. 예컨대, 조익은 사제관계를 맺은 지 이틀만인 1618년 11월 4일에는 당세의 인물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기탄없이 드러낸다.

1618년 11월 4일. 선생께서 금세의 인물을 논하기를, ‘卿相의 반열에서는 申玄翁(申欽)이 제일가는 인물이고, 堂上官의 지위에서는 金尙憲(金尙憲)가 제일가는 인물이고, 우리 중에서는 李昌期(李命俊)가 제일가는 인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張維의 인물됨을 극찬하여 ‘수년 전에 내가 장유와 변론을 하여 많은 부분 서로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장유의 이론이 모두 옳았다. 지금 사람 중에 이치를 아는 이가 누구냐고 하면, 장유만이 이치를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趙翼]만 못하다.’라고 하였다.⁶⁷⁾

조익은 당대의 인물을 논하면서 申欽·金尙憲·李命俊 및 張維를 으뜸으로 꼽았다. 신흠·김상헌의 명성은 익히 알려진 바, 별론이 필요치 않지만 조익이 이명준을 높이 평가한 것은 자못 이채롭다. 더구나 맨 앞에 언급한 신흠은 이제신의 사위, 이명준은 아들이었으므로 전의이씨 淸江家門에 대한 포괄적 호평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사실 조익이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장유(1587-1638)였다. 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 장유에 대해서는 ‘이치를 아는 사람[知理者]’이라는 극찬을 더하고 있다. 그 찬사의 말미에서는 자신도 거기에 비견되는 존재로서의 ‘自矜心’을 강하게 투사하고 있다. 즉, 조익은 신흠·김상헌·이명준·장유에 견줄만한 당대 ‘엘리트집단’에 자신을 포함시키면서도 조금도 自嫌하지 않는다.

장유를 향한 조익의 강한 신뢰는 진심이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장

67) 趙克善, 『忍齋日錄』 <1618년 11월 4日>.

면은 조극선의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신보다 무려 8세 연하였던 장유의 인품·학술·문장 등에 대한 칭송은 겸양을 넘어 ‘自卑’에 근접한다.

1619년 2월 8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이 또 張維의 인간됨을 매우 칭찬하여서 “나를 장유에 비교하는 것은 인품으로 한다면 郭林宗(郭泰)을 黃叔度(黃憲)에게 비교하는 것 같고, 학술로 한다면 子貢을 顏淵에게 비교하는 것 같고, 문장으로 한다면 蘇轍을 蘇軾에게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⁶⁸⁾

특히 문장에 있어서는 장유를 義理와 文詞 모두에 통달한 거의 유일한 존재로 추앙하기까지 했다. 장유에 대한 그침없는 찬사는 조극선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급기야 조극선은 장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조익의 대답은 질문을 현저하게 압도했다.

1621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문장에 능하다고 이름난 사람이 쓴 序文과 跋文도 모두 가소로우니 이는 필시 行文의 妙理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張持國(張維)만은 義理와 文詞에 대해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한번 장지국과 문장을 논하게 되면 뜨거운 물건을 집었던 자가 맑은 바람에 씻긴 것처럼 상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장공의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만약 노성해지면 그 이른 경지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비록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지금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다시 어디로 나아가겠는가?’라고 했다.⁶⁹⁾

조익의 論人은 ‘極讚’과 ‘極貶’으로 대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신흠·김상헌·이명준·장유에 대한 찬사와는 달리 鄭經世(1563-1633)·崔昱(1539-1612)에 대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정경세를 ‘이기적 욕심에 이끌려 의롭지 않는 행동을 일삼는 자[苟其情欲利己 則亦無所不爲]’, 최립을 ‘지닌 것에 비해 자만이 지나친

68)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2月 8日>.

69)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7月 28日>.

자[所有者少而自多也]’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후자에 대해서는 증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⁷⁰⁾

정경세에 대한 조익의 분노는 이어진다. 1621년(광해군13) 金是樞 등 영남 유생들이 이이첨을 규탄하는 ‘請斬李爾瞻疏’를 올린 바 있다. 대부분의 영남 유생들이 동참하였으나 상주·함천·성주 등 일부 군현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는데, 상주 유생의 불참은 정경세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⁷¹⁾ 조익은 이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야비한 행동으로 규정했던 것이다.⁷²⁾ 조익의 정경세 인식은 ‘奸詐’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던 이명준의 입장과 합치한다. 이런 담론의 과정이 조극선의 ‘인물관’ 정립에 영향을 미쳤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조익은 이언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농후하다. 조극선이 『奉先雜儀』의 예학적 미흡성을 거론하기가 무섭게 『求仁錄』을 동일 범주에 묶어 평가 절하하는 가운데 『격몽요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율곡 존신론자로서의 학문적 좌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1619년 5월 25일. 나 克善이 또 『奉先雜儀』는 그다지 요긴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晦齋(李彦迪)는 평소 저술하기를 좋아하였으나, 그가 저술한 『求仁錄』 또한 아무 상관없는 책이다. 만약 배우는 자를 가르친다면 『擊蒙要訣』과 같은 것이 가장 좋다.’ 하였다.⁷³⁾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준이 우계문파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지계는 우계·율곡 양 문파의 경계에 존재하였다면 조익은 이이를酷慕했던 율곡문파의 학문적 구심점이었다. 그는 사제 담화의 자리를 빌어 조극선에게 자신의 문파적 입장을 강하게 주입시켰는데, 아래 대화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70)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4月 11日>.

71)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2)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9月 20日>.

73)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5月 25日>.

1619년 4월 3일. 선생이 ‘孔子 이래로 朱子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몽양이 ‘마땅히 공자와 孟子 이래라고 말해야 합니다.’라 하자, 선생이 ‘주자도 맹자보다 못하지 않다.’라 하였다. 나는 일찍이 주자를 顔子와 비슷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물었다. 선생은 ‘안자는 성인의 도를 배웠기에, 어떤 한 가지 것을 얻으면 굳게 간직하여 가슴에 새겨 두어 반드시 십분 다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약했고, 한 가지 不善함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끝내 제거해서 반드시 십분 다하여 악을 없앴을 기약했다. 후대로 와서는 오직 주자만이 그럴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말한다면 栗谷이 주자와 비슷하다.’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임금으로는 仁宗만한 이가 없고, 신하로는 율곡만한 이가 없다.’고 말하였다.⁷⁴⁾

이 대화에서 조익은 孔子⇨朱子⇨李珣로 이어지는 도통을 언급하는 한편 군신의 으뜸으로 仁宗과 李珣를 꼽고 있다. 조익에게 이이는 학자·관료 양측적 측면에서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현재적 위치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즉, 조익은 배움과 그것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학자’인 동시에 ‘관료’를 이상적 인간형으로 설정했던 것이고, 그 점에서 이이와 자신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화를 통해 조극선은 조익을 ‘栗谷門派’로 확신하는 가운데 율곡학에 천착하게 되는데,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조극선이 조익을 향해 품었던 최대의 관심처는 『大學困得』·『中庸困得』·『論語淺說』·『孟子淺說』 등 경전 주해에 대한 소신과 입장이었다. 이 영역은 박지계로부터 ‘주자를 믿지 못하는 병통’으로 지적된 바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 의문은 비교적 쉽게 해명되었다. 『대학곤득』에 대해서는 조극선의 질문이 있기 전에 조익이 먼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1618년 11월 25일. 선생이 말하였다. ‘내가 스스로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일찍이 臆見으로 『大學』에 주를 달았지. 비록 그것이 모두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더러 나이 스물 두셋 때의 소견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잘못된 곳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네’라고 하시면서 꺼내어 보여주시며 말하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74)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4月 3日>.

매우 두렵다네.’라고 하였다.⁷⁵⁾

『대학곤득』은 20대 초반의 저작이었고, ‘臆見’,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자신의 저술에 대한 묘한 자족감이 투영되어 있는 듯 하다. 『논어천설』의 경우 조극선이 차람을 청했을 때 평생의 공력처임을 언급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⁷⁶⁾

이 대목에서 조극선은 困得 및 淺說類에 대한 저자[趙翼]와 타자[朴知誠 등]의 상반된 인식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취하고자 했던 학문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⁷⁷⁾ 그의 서책록인 ‘家藏書籍’에는 이명준의 『잠와유고』, 박지계의 『近思錄解』를 비롯하여 조익의 『論語淺說』·『孟子淺說』·『中庸困得』·『大學困得』·『心法十二章』·『易象概略』·『開惑淺語』·『棹歌詩註』 등 3사의 주요 저술이 갈무리되어 있다.

2) 會話 및 談論을 통한 문건의 검증과 확장 : ‘友’

이명준·박지계·조익 등 3사와의 담론 못지 않게 조극선의 문건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우들과의 교유 및 대담이었다. 사우들로부터 얻은 정보 중에는 3사와는 그 견해가 사뭇 다른 것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현광 등 영남학인에 대한 것이었다. 예컨대, 장현광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명준은 ‘人品不高明論’에 바탕하여 장현광을 폄훼하는 입장을 보였고, 박지계는 덕망은 인정하되 학문에 있어서는 정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론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619년 3월 조극선은 영남 출입이 빈번했던 黃子

75)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1月 25日>.

76)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2月 9日>.

77) 효종 후반 경기 유생들이 趙翼을 제향하기 위해 광주 鵬浦에 明臯書院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일각에서 朱子의 四書 註를 改易했다는 이유로 원향을 반대하자 조극선은 조익을 朱子를 極尊하는 학자라는 논리로 적극 변론한 바 있다(趙克善, 『治谷集』 卷9, <耳官(下)>).

深이란 벗으로부터 장현광과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된다.

1619년 3월 9일, ‘내가 영남에 가 있으면서 한번 인사를 드렸다. 선생은 國忌日과 선현·친척·벗의 기일에는 모두 素食을 행합니다.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서울에서 와서 인사하는 이가 있으면 비록 가장 절친한 이라도 먼저 옥체의 평안함을 물을 뿐 세상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고 했으며, 또 ‘근래 유학의 宗匠으로는 선생만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고 했다.⁷⁸⁾

장현광을 ‘당세 유종[近日儒宗]’으로 평한다고 하는 대목에서 조극선은 인식의 혼란을 겪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장현광에 대한 조극선의 호감도는 점차 높아졌고, 그만큼 관련 정보의 획득에 귀를 기울였다. 사우들 또한 조극선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현광 등 영남 소식을 즉시 전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 ① 1621년 2월 17일, 또 基甫(崔自弘)가 仁同에서 두 차례 보낸 안부 편지를 보았는데, 여현 장선생(張顯光)이 사는 마을이 가까워 몇 번 만났다고 하였다.⁷⁹⁾
- ② 1621년 7월 26일, 놀고 난 다음에 요사이 基甫에게서 들은 여현 장선생의 行錄과 常人 崔宜山의 일을 別紙에 기록하였다.⁸⁰⁾
- ③ 1621년 7월 27일, 基甫의 이번 걸음을 통해 여현선생이 쓴 문장과 다른 유명한 사람의 詞를 얻었다. 선생이 보고 나서 내가 여현의 문장이 어떤지를 물었다. 선생은 모르겠다고 하였다.⁸¹⁾

그는 장현광의 행록을 별지에 필사하고, 文詞를 구해 조익에게 품평을 구하는 등 장현광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인용문의 조익의 냉담한 반응은 오히려 장현광에 더욱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정황은 그가 자신의 또 다른 저술 ‘三官記’에 장현광의 행적 및 禮說 등을 꼼꼼하게 채록해 둔 것에서 확인할 수 있

78)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3月 9日>.

79)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2月 17日>.

80)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7月 26日>.

81)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7月 27日>.

고,⁸²⁾ 이것은 그가 당세 또는 당세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다양한 정보의 수렴을 통해 ‘자기방식’으로 정돈해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정구에 대한 정보는 장현광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것은 정구의 졸년(1620년)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황자심으로부터 들은 정구의 性情은 미담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조극선은 傷時的 공감으로 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619년 3월 9일. 또 寒岡 선생의 일을 말하며, 한강은 대구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어 ‘鄭仁弘이 행한 일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였으며, 대개 당시를 탄식하며 성내고 한탄하는 말이 많았다. 바야흐로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귀와 눈이 있는 이라면 모두 마음 아파 하며 탄식하는 것이다.⁸³⁾

정구와 관련하여 조극선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한강문인들의 ‘心喪’이었다.

1621년 4월 8일. 또 基甫(崔自弘)가 仁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 ‘정 한강의 제자 중에 心喪을 입은 사람이 두 명인데, 대구의 蔡夢硯과 靈山の 李厚慶이다.’라고 했다. 그 사람됨을 상상하니 필시 어진 사람일 것이다.⁸⁴⁾

조극선은 師服으로서의 心喪에 대해 관심이 매우 컸던 바, 그것을 행한 蔡夢硯·李厚慶을 ‘어진이[賢者]’의 범주에서 평가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한강선생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고 일각했던 이명준의 ‘한강인식’과는 그 결이 사뭇 다를 수 있다. 채몽연·⁸⁵⁾이후경⁸⁶⁾의 존

82) 趙克善, 『冶谷集』 卷7, 「三官記」 <心官> ; 卷8, <耳官>(上) ; 卷10, <目官>.

83)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3月 9日>.

84)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4月 8日>.

85) 대구 출신인 채몽연은 정구의 舟遊에 동참하는가 하면 무고를 입은 정구의 신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정구 사후에는 신희이 지은 ‘寒岡神道碑銘’의 改撰論을 이끌었을 정도로 寒岡門派 내에서 위상이 높았던 인물이다(김학수, 「寒岡(鄭述)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65~86쪽).

86) 영산 출신의 李厚慶은 정구와 척분이 있었고, 자신을 포함하여 子姪 등 일문이 정구

재는 조극선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고,⁸⁷⁾ 마침내 1627년(인조5) 6월 조극선은 이후경을 상면하게 되는데, 『야곡일록』에는 그날의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다.

1627년 6월 28일. 좌중에 사십시 직장 李厚慶이 있었다. 그는 靈山 사람인데, 자기 고을의 수령인 姜丈을 뵈러 온 것이다. 이후경은 寒岡高弟인데, 반정 초에 창락도 찰방으로 벼슬을 시작했다. 대개 경신(1620)·신유(1621) 연간에 한강을 위해 心喪 3년을 행한 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성명을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분명하다.⁸⁸⁾

이후경의 행위가 평소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이로부터 3년 뒤인 1630년(인조8) 이명준이 사망했을 때 그는 심상을 몸소 행하게 된다.⁸⁹⁾

이명준이 ‘간사한 인물’로 폄훼했고, 조익이 ‘私利에 매몰되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로 비난했던 정경세에 관한 평판도 정보의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617년(광해군9) 5월 조극선은 李丈으로부터 정경세에 관한 소식을 접했는데, 이명준·조익으로부터 들은 것과는 판이했다. 이장이 그에게 전한 정경세는 ①‘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관료’, ②‘直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 ③‘가정에서는 忠孝를 가르치는 엄격한 부형’, ④‘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원칙론자’였다.⁹⁰⁾ 인간과 시대에 대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그가 취사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조극선이라는 학인의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본질이 될 것이다.

를 사사하여 寒岡門派의 핵심을 이루었다(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151~160쪽).

87) 정구 사후 心喪을 행한 寒岡門人은 채몽연·이후경 외에도 崔恒慶·李籟·李天封·裴尙龍·李道孜 등이 있다(김학수, 앞의 논문, 2010, 143쪽).

88) 趙克善, 『治谷日錄』 <1627년 6월 28日>.

89) 김학수 앞의 논문(2017), 49쪽.

90) 趙克善, 『忍齋日錄』 <1617년 5월 27日>.

한편 조극선은 사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건 또는 판단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백증을 들 수 있다. 俞伯曾(1587-1646)은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3등)에 녹훈되지만 광해군 때까지만해도 서인계에서는 시대에 버림받은 현량한 인재로 명성이 있었다. 조극선은 1620년 11월 田槩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유백증과 상견하게 되었지만, 그가 자신의 3사 이명준·박지계·조익과는 ‘동지관계’에 있었음은 익히 알고 있었다.

1620년 11월 29일, 감찰 俞伯曾은 이름난 선비로, 시대에 버림받고 벼슬하지 않은 분인데, 바로 徐後積의 매부이다. 참봉이 감찰의 훌륭한 점을 말하며 주선하여 내게 만나도록 권하기에 마침내 찾아가 만났다. 감찰은 이선생(李命俊), 박선생(朴知誠), 조선생(趙翼) 세 분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기에 세 분 선생의 일을 이야기하였다⁹¹⁾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담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622년(광해군14) 9월이었다. 여기서 그는 평소 품었던 의문점 몇 가지를 대화의 소재로 삼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조익의 ‘栗谷東方第一論’이었다. 그는 조익이 이이를 동방의 제일인으로 칭송하는 것을 과람하게 여겼던 것 같고, 이에 대한 유백증의 의견을 구했다.⁹²⁾ 유백증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조익의 견해에 강한 공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徐敬德·成運을 오현[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에 비견되는 학자라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조극선이 얻은 것은 조익의 ‘栗谷觀’이 서인계의 보편적 인식에 가깝고, 서경덕·성운 또한 학습할만한 대상임을 인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언적의 출처관이였다. 이언적의 출처는 오현의 문묘종사 과정에서 이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曹植으로부터는 강한 조소를 받았을 정도로 사림사회에서는 큰 이슈로 자리잡은 지 오래였다. 조극선 또한 사림의 통념을 수용하는

91)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11月 29日>.

92)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9月 20日>.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었는데, 유백증은 논평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조극선의 주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⁹³⁾ 세 번째는 장현광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문건이라 전제하고는 있지만 조극선은 장현광을 ‘賢者’로 바라보고 있었고, 다만 그가 영남에서 생장한 탓에 성혼·이이의 緒論을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⁹⁴⁾ 즉, 조극선은 장현광과 같은 큰 학자가 牛栗學風의 영향을 받았다면 조선 학계에서의 저변은 강화되고, 그 외연 또한 더욱 넓어졌을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유백증은 그의 의중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다. 세 번째 질문은 유백증의 동의 여부를 떠나 장현광에 대한 조극선의 학문적 이끌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며, 나아가 이것은 旅軒學을 매개로 한 湖嶺間 학문 교류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V. 지식문화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지적 嗜好의 모색 양상 : 이황·이이·김장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1. 李滉 : 淵源 유통의 지적 自由

17세기 지식으로서의 조극선의 지적 관심은 공간으로서의 ‘호서 및 서울[京]’, 학문적 계통으로서의 ‘畿湖學’, 정파로서의 ‘西人’에 제한되지 않았다. 물론 조극선은 이명준·박지계·조익의 문인이란 점에서 그 학문이 기호학에서 연원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이와 함께 16세기 조선 사상계의 기반을 확립했던 이황에 대한 지속적 천착은 그가 온축했던 지식의 성격, 학자적 지향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

93)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9月 20日>.

94)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9月 20日>.

〈조극선이 소장 또는 학습한 퇴계학 관련 저작〉

- 退溪集：필사 및 학습
- 朱子書節要：소장
- 喪祭禮答問(1623)
- 四書釋義：소장
- 三經釋義：소장
- 退溪詩：필사 및 학습
- 宋季元明理學通錄：학습
- 退溪與奇存齋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소장
- 陶山十二曲并序文：소장

이황에 대한 천착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 계승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그런 정황은 그가 소장 또는 학습했던 퇴계학 관련 서적의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황 관련 기본 텍스트라 할 수 있는 『퇴계집』을 비롯하여 『朱子書節要』, 『喪祭禮答問』, 『四書三經釋義』, 『宋季元明理學通錄』 등은 주자학·경학·예학 관련 핵심 저작들인데, 그는 이를 自備[自買]·自書[抄寫] 등의 방식을 통해 입수하여 학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문집인 『야곡집』과 일기인 『인재일록』·『야곡일록』을 통틀어 조극선이 이황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1611년(광해군3) 4월 10일이다. 당시 그는 이명준에게 수학하기 위해 서울에 체류하던 중 館儒들이 鄭仁弘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1611년 4월 10일, 성균관 유생이 상소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鄭仁弘이 晦齋와 退溪를 비방하였으므로 유생들이 정인홍을 공격한 것이다. 길가에서 구경하였다.]⁹⁵⁾

95) 趙克善, 『忍齋日錄』 <1611년 4월 10일>.

물론 위 기사는 이황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시비에 대한 논평 없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만,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관유들의 행위에 대한 공감이다.⁹⁶⁾

이황에 대한 천착은⁹⁷⁾ 덕망에 대한 채록을 거쳐 점차 저술을 통한 학습의 단계로 발전했다. 아래 기사는 조극선에게 이황은 大儒를 넘어 清儉까지 갖춘 德體로 착상하는 미담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⁹⁸⁾

퇴계학 관련 저작 가운데 조극선이 가장 먼저 학습 및 참조했던 것 중의 하나는 『喪祭禮答問』이었고, 그 시점은 1617년(광해군9) 3월이었다. 이 무렵 조극선은 상례의 실제적 적용과 관련하여 『상제례답문』을 적극 활용했고,⁹⁹⁾ 1618년 5월에는 박지계의 요청에 따라 『상제례답문』을 구해준 일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극선은 1618년 주석 때는 이황 예학의 效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¹⁰⁰⁾ 한편, 이황 관련 저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

① 1618년 9월 2일. 익지가 退溪의 따가 기록된 許和叔 소장의 『近思錄』 한 권을 빌려서 보내주었다.¹⁰¹⁾

② 1618년 9월 17일. 屈峴에 십 리쯤 못 미쳤을 때 智堦이라 불리는 중을 만났는데, 『四書三經釋義』[『經書釋義』]를 팔고 있었다. 내가 책을 사고 싶어 하니, 나는 그를 몰라도 그는 나를 상세히 아는 자였기에 내년 봄에 값을 치르기로 하고 책을 주었다. 이에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¹⁰²⁾

96) 조극선이 목격한 것은 4월 10일 관학유생 李檠을 소두로 하여 올린 정인홍 탄핵소였다(『光海君日記』〈光海君 3年 4月 10日(己卯)〉).

97) 이황에 대한 천착은 채록하는 정보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이황의 외증손 朴景範의 貪虐 스캔들을 수록한 것이 그 대표적이다(趙克善, 『忍齋日錄』〈1622년 11월 21일〉“早食以行 過拜朴丈致謝 朴丈語大興前守朴景範 以退溪外孫 貪虐甚酷之事”).

98) 趙克善, 『忍齋日錄』〈1616年 10月 23日〉.

99) 趙克善, 『忍齋日錄』〈1617年 3月 4日〉.

100) 趙克善, 『忍齋日錄』〈1618年 8月 15日〉.

101) 趙克善, 『忍齋日錄』〈1618年 9月 2日〉.

102) 趙克善, 『忍齋日錄』〈1618年 9月 17日〉. 이듬해 즉, 1619년 봄에 상환하기로 했던

이황에 대한 친연적 입장은 사우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 같다. 황자심의 ‘陶山十二曲序文’ 증정은¹⁰³⁾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대변한다.

한편 조극선은 1621년(광해군13) 윤2월 2일 이른바 ‘퇴계경모의식’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것은 ‘현몽’을 통한 이황과의 만남이었다. 이날 일기에서 그는 이황과의 ‘夢中談話’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

1621년 윤2월 2일. 집 부엌에서 동남쪽 모퉁이가 바로 내방인데, 아궁이 위쪽의 닭의 해 아래에 어떤 어른이 앉아 있었다. ‘退溪李先生’이라고 하기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또 한 사람이 선생 곁에서 아무개 고을의 서원에 八賢을 배향하는 일을 물었다. 朱子를 主壁으로 삼고, 아무개 선생, 아무개 선생 등 세 신위의 坐次를 정하고 나머지 네 신위는 단지 鄉先生으로 배향하는 일이었는데 사론이 그 좌차를 다투느라 정해지지 않았다. 대개 영남 고을의 일인 듯하였다. 선생이 대답한 말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景賢錄』을 손에 들고서 ‘寒暄先生(金宏弼)은 문장에 능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義理의 학문에 대해서도 지극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 선생이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씀하기를, ‘내가 스승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의 스승은 宰相 金德鸞에게 들었다.’라고 하고는 곧바로 낭랑하게 시를 읊조렸다. ‘지주는 주공을 꿈꾸지 못했을 뿐이니, 음양을 다스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砥柱但難周公夢, 料理陰陽勿爲輕]’고 하였다. 이에 나는 퇴계 선생이 내가 착실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함부로 선배들의 말을 논하는 것을 경계한 줄 깨닫고 마침내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¹⁰⁴⁾

그가 꿈에서 이황과 나눈 대화의 사실성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꿈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나는 것이다.

책 값은 승려 智攄의 호의로 인해 사실상 贈呈으로 처리되었다(『忍齋日錄』, <1619年 1月 26日>). ;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2月 20日>.

103)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3月 10日>.

104)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閏2月 2日>.

퇴계집 학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8년 9월 14일 : 학습[始看] ▫ 1628년 9월 30일 : 학습 및 필사[或覽或寫] ▫ 1628년 10월 1일 : 학습 ▫ 1628년 10월 5일 : 학습 ▫ 1628년 10월 7일 : 학습 ▫ 1628년 10월 8일 : 학습 및 필사[或覽或寫要語] ▫ 1628년 10월 11일 : 필사 ▫ 1628년 10월 19일 : 필사 ▫ 1628년 10월 23일 : 필사 ▫ 1628년 10월 24일 : 필사 ▫ 1628년 10월 30일 : 학습 및 필사[覽閱抄寫] ▫ 1628년 11월 1일 : 학습[拓觀退溪詩] ▫ 1628년 12월 26일 : 학습[漫看退溪詩集] ▫ 1628년 12월 29일 : 학습 ▫ 1629년 6월 18일 : 필사[心有不平 精寫退溪集]
--------------	--

아래는 꿈에 대한 소회인데, 우선 그는 이황의 현몽을 의아함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감동 또는 감사에 근접하고 있다. ‘周公’과 ‘孔孟’은 유학의 道統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들의 등장에 대한 언급은 ‘퇴계계승의식’의 완곡한 표명으로 읽힌다. 마지막에 보이는 경계 또는 戒懼 의식은 ‘퇴계계승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621년 윤2월 2일. 퇴계 선생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또 이곳은 선생이 살았던 禮安과 거리도 매우 먼데, 어째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선생이 읊은 시구에서 윗구절은 어렵듯하여 착오가 있는 듯하지만, ‘砥柱但’ 세 글자 및 아랫구절의 일곱 글자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周公’ 두 글자 및 아랫 구절을 읊을 때 또 ‘孔孟’ 두 글자 등의 말이 있었던 것도 귀에 선명하니, 참으로 이상한 꿈이다. 선생이 앉아 계신 곳이 또 어찌 닭의 뿔 아래였을까? 하늘이 새벽에 암탉이 우는 것으로 경계를 보였는데도 내가 여전히 반성하고 더욱 수양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만 있기에 神明이 이것으로 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부디 온 집안 부자·형제·처자식이

모두 편안하고, 만일 재앙이 있다면 내 몸에만 내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아침에 꿈 속의 일로 느낌이 있어 마침내 시를 지어 내 마음을 담았다.¹⁰⁵⁾

그는 꿈의 감회를 시로 표현했다고 했으나 『야곡집』에서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세전 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일설되었거나 19세기 후반 『야곡집』(1893년) 편간 과정에서 편집된 것으로 추측된다.

꿈을 현실에서의 사유와 인식의 반영으로 받아들였던 주자학자들의 꿈 관념에¹⁰⁶⁾ 비추어 볼 때, ‘퇴계현몽’은 이황에 대한 학문적 친화의식의 반영에 분명했고, 그것은 또 ‘親和’를 ‘景慕’의 단계로 격상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 『상제례답문』 초사 작업은 그 단적인 예로 포착된다. 조극선이 『상제례답문』의 초사 작업에 착수한 것은 1621년 9월 경이었다.¹⁰⁷⁾ 초사 작업은 교감을 거쳐 정사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¹⁰⁸⁾ 이듬해인 1623년 봄 조극선은 발문을 통해 그 의미를 자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상제례답문』이 ‘禮學’에 뜻을 둔 자신에게는 指南과 같은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編帙의 거대함으로 인해 원전 그대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분류 방식으로 초사했음을 밝히고 있다.¹⁰⁹⁾

선현의 문자를 去取했다는 혐의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의성을 취한 것은 초사의 본질, 즉 이황의 禮意에 대한 講究 의식만큼은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발문의 찬자를 기명하면서 스스로를 ‘後學’이라 한 것은 계승의식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¹¹⁰⁾

퇴계학에 대한 관심과 학습은 『상제례답문』에 국한되지 않고 ‘四七論’¹¹¹⁾ 및 『주자서절요』 등의 텍스트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주자서절

105)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閏2月 2日>.

106) 尹拯, 『明齋遺稿』 卷31, <南遊記聞>.

107)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9月 17日/21日>; <1622年 2月 26日/28日/29日>.

108)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2月 30日>;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3月 5日>.

109) 趙克善, 『治谷集』 卷5, <抄寫退溪喪祭禮答問後識>.

110) 趙克善, 『治谷集』 卷5, <抄寫退溪喪祭禮答問後識>.

111)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10月 10日>.

요』의 경우 1616년(광해군8) 5월 처음으로 열람한¹¹²⁾ 이래 借覽 및 借寫 등의 방식을 통해¹¹³⁾ 텍스트를 확보한 다음 1622년(광해군14)부터 1625년까지 집중적으로 학습했다.¹¹⁴⁾ 이 과정에서 1624년에는 定遠君(元宗) 추숭논쟁의 중요 참조 문헌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¹¹⁵⁾

한편 조극선이 이황의 『退溪集』을 열람·학습하기 시작한 것은 1628년 9월 14일이었다. 『朱子書節要』(1616), 『喪祭禮答問』(1617)의 학습 시점과는 10년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주자서절요』 ⇨ 『상제례답문』 ⇨ 『퇴계집』으로 이어지는 독서 次第의 배경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조극선의 『퇴계집』 독법은 열람·필사 및 ‘요점정리’ 형식으로 진행되었고,¹¹⁶⁾ 시기적으로는 1628년에서 1629년에 집중되었다.

초사 및 열람 기록의 자세함에 비해 학습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퇴계집』을 읽으면서 감회가 깊었다는 언급, 특정 작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¹¹⁷⁾ 마음이 편치 않아 退溪詩를 정사했다는 기록은¹¹⁸⁾ 『퇴계집』이 단순한 학습의 대상을 넘어 심적 위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황의 고사를 통해 ‘變化氣質’의 필요성을 더욱 각성하는¹¹⁹⁾ 등 퇴계학을 修養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었고, 1643년 두 번 제의 ‘퇴계현몽’에서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축했던 ‘퇴계관’을

112) 趙克善, 『忍齋日錄』 <1616년 5월 6日>.

113)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10월 29日>, <1622년 11월 2日>.

114)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12월 7日>, <1623년 1월 11日>, <1623년 1월 16日>, <1623년 1월 17日>, <1623년 2월 27日>;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4월 20日>, <1624년 7월 3日>, <1624년 7월 12日>, <1625년 10월 10日>.

115)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6월 26日>.

116) 『退溪集』의 抄寫·精寫 공정을 수행했음에도 ‘家藏書籍’에 『退溪集』이 빠져있는 이유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117) 趙克善, 『治谷日錄』 <1628년 11월 1일>.

118) 趙克善, 『治谷日錄』 <1628년 12월 26日>; 趙克善, 『治谷日錄』 <1629년 6월 18日>.

119) 趙克善, 『治谷集』 卷10, 「三官記」 <目官>.

표출하게 된다.

우선 그는 자신의 꿈을 공자가 伏羲를 현몽한 것에 견주었고, 노년의 공자가 더 이상 周公을 현몽하지 못한 탄식을 세대간의 격차로 인해 퇴계문하에 급문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동일시 하고 있다. 조극선은 道脈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황에 대한 경모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자께선 복희씨를 사모했기에	孔聖慕姬公
일상의 꿈 속에서 늘 뵈어 왔었지	常常夢見之
노년 들어 다시금 사모한 이 볼 수 없음에	老矣不復見
이젠 나도 늙었구나 탄식하셨네	喟然歎吾衰
내 비록 만생이지만 고인을 좋아하고	我生晚好古
내가 본받을 고인 그 누구더뇨	古人與歸誰
가만히 도산翁을 상상하노라면	緬想陶山翁
시대를 함께 하지 못함이 한스러울 뿐	恨不及同時 ¹²⁰⁾

이 꿈은 1621년 이후 22년만의 현몽이었던 바, 감회의 크기 만큼이나 그 설명 또한 세세하다.

덕산과 예안은 대략 오백 리 거리이다. 선생은 융경 기사년[1569 ; 경오년 즉, 1570년의 오기]에 돌아가셨고, 나는 만력 을미년(1595)에 태어났으므로 그 간격은 27년이다. ... 지금 꿈을 꾸 해에 기준하면 선생께서 돌아가신 것은 73년이 된다.¹²¹⁾

지금 조극선은 이황과 자신의 관계성을 공간 및 시간에 대입하여 그 시공의 격차를 인간관계의 특별함으로 환산하고 있다. 그에게는 우연성과 무형성이 결합된 꿈조차도 이황에 대한 향념을 지피는 매우 의미로운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27세 때인 1621년 윤2월 2일의 꿈에서 의심스런 것을 질문했던 기억을 소환하여 꿈의 연속성을 강조한¹²²⁾ 것 또한 계승의식의 강조 용법이었다.

120) 趙克善, 『治谷集』 卷1, <夢謁退溪先生從容問答>.

121) 趙克善, 『治谷集』 卷1, <夢謁退溪先生從容問答>.

122) 趙克善, 『治谷集』 卷1, <夢謁退溪先生從容問答>.

2. 李珥 : 기호학인으로의 퇴행적 自定

조극선의 ‘율곡관’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三師와의 대담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각인된 것은 공자(공자)주자(주자)이이로 이어지는 도통인식을 피력했던 趙翼의 ‘율곡론’이었다. 물론 조극선은 3사의 견해를 비판·검증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점차 이이를 학자 및 관료의 전형으로 받아들이면서 경모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이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 및 판단의 결과이겠지만, 율곡학의 ‘학문권력화’라는 인조반정 이후의 학계 및 사회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극선이 소장 또는 학습한 율곡학 관련 저작>

- ▣ 栗谷集 : 自備本
- ▣ 聖學輯要 : 受贈本
- ▣ 擊蒙要訣 : 自書本
- ▣ 東湖問答 : 學習[借覽]
- ▣ 小學諸家集註 : 學習[借覽]
- ▣ 栗谷神道碑銘 : 自書本
- ▣ 栗谷年譜 : 自書本
- ▣ 栗谷世系 : 自書本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이에 대한 관심은 1616년(광해군8) 이명준의 유배지 영덕에서 성혼·이이의 우열을 질문한 것에서 구체화 되었고, 이후 『율곡집』의 차람, 『격몽요결』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율곡학 학습 현황	▫ 栗谷集 열람	<1618년 4월 29일>
	▫ 栗谷集 借覽	<1618년 5월 23일>
	▫ 擊蒙要訣 열람	<1618년 11월 20일>
	▫ 栗谷集 학습	<1619년 2월 1일>
	▫ 栗谷集 疏筭 학습	<1620년 3월 28일>
	▫ 栗谷集 疏筭 학습 및 초록	<1620년 3월 29일>
	▫ 東湖問答 학습	<1620년 6월 20일>
	▫ 擊蒙要訣 학습	<1621년 1월 27일>
	▫ 栗谷詩 차람	<1622년 7월 14일>
	▫ 栗谷詩 학습	<1622년 7월 20일>
	▫ 栗谷年譜 抄錄	<1622년 7월 20일>
	▫ 感天記 차람	<1622년 7월 21일>
	▫ 栗谷集 抄寫	<1622년 8월 25일>
	▫ 栗谷先生所點竄大學小註 차람	<1623년 4월 24일>
	▫ 栗谷集 학습	<1624년 6월 17일>
	▫ 栗谷碑文 필사	<1627년 7월 6일>
	▫ 栗谷集 차람 및 수증	<1627년 4월 23일>
	▫ 栗谷神道碑 繕寫	<1627년 5월 14일>
	▫ 栗谷世系 및 年譜 열람	<1629년 3월 5일>
	▫ 栗谷年譜 초록	<1629년 3월 10일>
	▫ 栗谷集 학습	<1631년 3월 7일>
	▫ 栗谷集 학습 및 초록	<1631년 3월 11일>

이런 맥락에서 조극선은 『栗谷集』, 『聖學輯要』, 『擊蒙要訣』, 『東湖問答』 등 율곡학 관련 핵심 저작들을 소장·필사 및 차람을 통해 학습했으며, 그 관심은 碑文[栗谷神道碑銘]과 世系[栗谷世系]를 필사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었다.

조극선이 『율곡집』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1618년 4월 29일 민홍준의 집에서 였고, 여기서 그는 『율곡집』에 수록된 ‘趙光祖碑銘[靜庵碑銘]’과 ‘戚守琛行狀[聽松行狀]’을 열람했다. 동년 5월 23일 그는 다시 민홍준의

집에서 『율곡집』을 빌리게 되는데, 이는 당시 閔弘俊이¹²³⁾ 덕산 일대에 서는 대표적인 ‘藏書家’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후 그는 1618년 4월과 11월에 각기 박지계·조익의 문하를 출입하면서부터 학술 서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격몽요결』을 처음 본 것도 조익의 집에서였다.¹²⁴⁾

그러나 민홍준가에 대한 知的 의존성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1619년 2월 1일 『율곡집』을 차람한 뒤의 소감에는 『율곡집』이 지적 욕구의 대상에 한정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1619년 2월 1일. 子必(閔祺壽)과 함께 모여서 책을 읽으려고 책을 끼고 가서 방 문하니 閔丈(閔弘俊)은 외출하였다. 인사를 한 뒤에 『栗谷先生集』 2권을 얻어 읽었다. 자신도 모르게 정감을 느껴 마침내 책 읽기를 그만두고 보기만 하였다.¹²⁵⁾

1619년 4월 3일 이이를 공자⇨주자로 이어지는 도맥의 계승자이자 國朝 이래 ‘賢臣’의 으뜸으로 평가했던¹²⁶⁾ 조익의 답론은 조극선이 이이의 학문과 경제관에 더욱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620년 3월부터 『율곡집』에 수록된 ‘疏筭類’를 탐독하며 표현이 뛰어난 대목을 초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후 동년 4월 1일 네 권 분량의 疏筭을 완독한 뒤의 소회에서는 ‘惑慕’에 가까운 존경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극선에게 이이는 학문과 경제적 역량을 겸한 愛君憂國의 현인으로 고착되어 갔던 것이다.

1620년 4월 1일. 종일 책을 보았다. 율곡 선생의 疏筭 4권을 두루 보면서 위대한 현인의 기상을 떠올려 보니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더욱 절실하였

123) 민홍준은 權寧의 사위 閔師驤의 현손으로 관함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가세는 탄탄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李濟臣의 사위 閔有慶과는 근친간이었다. 특히 그 아들 閔祺壽는 조극선과 잠야·포저문하의 동문으로 박지계·조익으로부터 文才를 인정받은 秀才였다(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月 13日>, <1619年 4月 3日>).

124)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1月 20日>.

125)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2月 1日>.

126)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4月 3日>.

다. 폐습을 개혁하여 古道를 만회하고자 치국의 법제와 규모를 매우 소상히 이해 하였고,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였으나, 백에 하나도 시행되지 않은 탓에 끝내 우리 백성이 그 은택을 입지 못했으니, 아무리 한탄해도 부족하였다.¹²⁷⁾

이후 그의 독서 및 학습은 『東湖問答』·『擊蒙要訣』을 비롯하여 ‘栗谷詩’, ‘栗谷年譜’, ‘感天記’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 문자를 초록하는 것은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 ① 1620년 6월 20일. 아침에 서책을 펼쳐 보았고, 또 율곡선생의『東湖問答』을 보았다.¹²⁸⁾
- ② 1621년 1월 27일. 율곡선생의『擊蒙要訣』「事親章」을 펼쳐 읽으며 혼자 슬피 하였다.¹²⁹⁾
- ③ 1622년 7월 14일. 율곡시를 빌려 보았다.¹³⁰⁾
- ④ 1622년 7월 20일. 율곡시집과 연보를 보았고, 그 대개를 초록했다.¹³¹⁾
- ⑤ 1622년 7월 21일. 또 栗谷李氏 感天記를 빌려 보았다.¹³²⁾
- ⑥ 1622년 8월 25일. 아침에 율곡집의 좋은 문자를 초록했다.¹³³⁾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무렵인 1622년 9월 20일 조극선은 유백증과 논인을 주제로 한 담론의 기회를 가진 바 있고,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조익이 이이를 ‘동방제일인자’로 극찬한 것의 타당성이었다. 짐작컨대, 이 질문은 조익 ‘율곡관’의 當否 뿐만 아니라 2~3년 사이에 율곡학의 영역 속으로 급속하게 경도되어 가고 있었던 자신의 학문적 행보에 대한 진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유백증에게 던진 질문은 ‘자기점검’의 과정이었고, 조익의 ‘율곡관’에 대한 유백증의 동의는 ‘자기

127)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4月 1日>.
 128)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6月 20日>.
 129)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月 27日>.
 130)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7月 14日>.
 131)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7月 20日>.
 132)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7月 21日>.
 133) 趙克善, 『忍齋日錄』 <1622年 8月 25日>.

확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유백증과 담론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1622년(광해군14) 11월 10일자 『인재일록』의 기사는 '확신'의 단서로 포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이가 곧 '東方의 朱子'라는 인식은 조익의 '율곡관'과 완벽하게 합치한다.

1622년 11월 10일. 아침에 일어나 우계집에 실린 우계와 율곡 두 선생께서 변론하신 理氣書를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생각건대, 율곡선생의 도학의 고명함은 푸른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으니[青天白日], 참으로 우리 동방의 주자였다.¹³⁴⁾

이후 그의 독서는 『小學諸家集註』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¹³⁵⁾ 1624년 7월 16일 조익이 知製敎의 직함으로 이이의 '宣謚祭文'을 찬술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더없는 영광의 기억으로 남았다.¹³⁶⁾ 1625년 1월 황해도 유생 吳讖 등이 이이·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에 환호하고,¹³⁷⁾ 1625년 12월에는 서인들이 이이와 같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지 않는 것에 분개심을 드러내며¹³⁸⁾ '栗谷後學'으로서의 학자적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율곡신도비명'의 善寫는¹³⁹⁾ 후학으로서의 징표와 같았고, 이이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스승 이명준을 위한 心喪을 基年으로 행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이의 예설에서 구한 것 또한 그의 '연원의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극선의 '율곡관'은 師友의 계도와 거기에 따른 知的 탐색이 인간, 특히 학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극선은 본디 '율곡존신론자'가 아니었음에도 조익 문화에서 담론·수학하는 과정에서 율곡학에 천착하여 『栗谷集』·『聖學輯要』·

134)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11월 10日>.

135) 趙克善, 『忍齋日錄』 <1623년 4월 24日>.

136)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7월 16日>.

137) 趙克善, 『治谷日錄』 <1625년 1월 24日>.

138) 趙克善, 『治谷日錄』 <1625년 12월 28日>.

139) 趙克善, 『治谷日錄』 <1627년 5월 14日>.

『東湖問答』 등 율곡학 관련 핵심 텍스트를 치밀하게 학습한 결과 조익에 비견되는 ‘栗谷酷慕論者’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3. 金長生 : 私淑으로 포장된 예학적 偏取

조극선과 김장생(1548-1631) 사이의 관계성의 핵심은 예학적 관심이었다. 김장생은 율곡학통의 적전이라는 도학상의 지위와 함께 당대 최고의 예학자로 일컬어진 석학이었다.

〈조극선이 소장 또는 학습한 예학 관련 저작〉

- | | |
|-------------|-------------|
| ▣ 家禮(朱熹) | : 家傳本 및 受贈本 |
| ▣ 家禮集覽(金長生) | : 家傳本(筆寫本) |
| ▣ 家禮儀節(邱潛) | : 自備本 |
| ▣ 五先生禮說(鄭球) | : 受贈本 |
| ▣ 喪祭禮答問(李滉) | : 自書本 |
| ▣ 喪禮備要(申義慶) | : 自備本 |
| ▣ 玄殷山家禮 | : 受贈本 |
| ▣ 趙咸昌喪禮抄 | : 家傳本 |

따라서 김장생의 학자적 위상과 예학을 매개로 한 학문적 관심의 일치, 덕산과 연산의 지역적 거리, 서인 기호학파라는 정파·학파적 동질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조극선의 사계문하 입문은 매우 자연스런 귀결로 보여질 수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물론 조극선은 김장생을 선학으로서 畏敬했고, 『家禮集覽』과 같은 예학 텍스트를 평생토록 천착했으며,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문답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지속했음에도 그는 사계문하에 입문하지 않았고, 김장생과의 상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장생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조극선은 저술을 통해 김장생을 학습·계승하고 있었고, 그것은 ‘私淑’이라는 형식의 학문 授受의 대표적 사례로 포착되기 때

문이다.

김장생과의 관계가 조극선의 일기에 등장하는 시점은 1619년(광해군 11)이다.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극선과 친분이 깊었던 사계문인 尹商舉였다. 성혼의 사위 尹煌(1571-1639)의 3자였던 윤상거는 17세기 중엽 이후 우학계통의 구심점을 이룬 尹宣舉(1610-1669)의 형이자 尹拯(1629-1714)의 중부였다.

조극선은 윤상거와 잦은 회동을 통해 강론하는 등 학술적 교류가 깊었고, 서책의 貸借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趙翼의 열람을 위해 『牛溪集』을 빌린 대상도 윤상거였다.¹⁴⁰⁾

① 1619년 6월 14일. 이어 둘째 형[趙從善]과 앉아서 『牛溪集』을 보았다. 尹汝諧(尹商舉)는 바로 우계 선생의 외손이었기 때문에 이 문집이 있었던 것인데, 둘째 형[趙從善]이 빌려 왔다.¹⁴¹⁾

② 1619년 10월 24일. 汝諧(尹商舉)가 『小學』과 『儒先錄』 1권을 가져와 보여주며 강론하였다. 또 말하기를 ‘근래 尼山에 있을 때 連山의 사계선생(金長生)을 찾아가 배알하고 선생이 기록한 『小學疑義』를 얻었는데, 역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빌려 보았다.¹⁴²⁾

위 인용문처럼 조극선이 김장생의 저술 가운데 가장 먼저 접했던 것은 『小學疑義』였고, 1620년 6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저작 ‘차마 참외를 먹을 수 없는 까닭을 밝힌 글[不食瓜說]’¹⁴³⁾은 이 책의 주해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¹⁴⁴⁾

김장생에 대한 관심은 꿈의 형식을 빌어 표출된다. 1621년 2월 조극선은 꿈에서 『가례집람』을 습득하였고, 그 꿈을 ‘사계문하’ 입문의 계시로 해석하기도 했다.

140)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月 4日>.

141)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6月 14日>.

142)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10月 24日>.

143) 趙克善, 『治谷集』 卷5, <不食瓜說>.

144)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6月 29日>.

1621년 2월 15일. 어젯밤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내가 산 아래 물가에서 盤石이 경사진 길을 걷고 있었는데, 水石이 몹시 깨끗하고 시야가 시원하였다. 길에서 책 하나를 주웠는데 바로 사계 선생의 『家禮集覽』으로, 예전에 내가 빌려보았던 李碩基의 집 소유의 책이었다. … 이는 자못 괴이한 꿈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禮를 좋아하지만 예를 다하여 살아가신 분을 섬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경계하여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사계의 학문을 잊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깊이 느낀 바가 있어 읊시 한 수를 지었다.¹⁴⁵⁾

물론 그는 사계문화에 입문하지 않았지만 『가례집람』은 그의 예학적 교본이 되었으며,¹⁴⁶⁾ 어느새 그는 윤상거를 통해 아우의 治喪 관련 問目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김장생과 가까워졌다. 김장생 또한 초학의 물음에 대해 정성스럽게 답목을 내리는¹⁴⁷⁾ 한편 조극선의 지학을 높이 평가하며 상견을 바란다는 기별까지 들려오자 김장생에 대한 이끌림의 강도 또한 고조되었다.

1622년 5월 22일. 尹汝任(尹商舉)이 사계선생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뜻을 지닌 선비이므로 내가 꼭 한번 만나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¹⁴⁸⁾

이후 그는 김장생과 관련된 예학 관련 기록 및 저작들을 착실하게 채록하는¹⁴⁹⁾ 한편 김장생의 정치사회적 행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¹⁵⁰⁾ 그

145) 趙克善, 『忍齋日錄』 <1621년 2월 15일>. 말미에 언급된 律詩 한首는 일기 및 『治谷集』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46) 趙克善, 『忍齋日錄』 <1621년 10월 15일>.

147)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5월 18일>.

148)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5월 22일>.

149) 趙克善, 『忍齋日錄』 <1622년 11월 9일>;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6월 24일>;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10월 25일>; 趙克善, 『治谷日錄』 <1624년 12월 22일>.

150) 趙克善, 『忍齋日錄』 <1623년 3월 19일>; 趙克善, 『忍齋日錄』 <1623년 5월 10일>.

관심은 계승의식의 표명과 같은 궤도에 있었다. 조극선의 ‘沙溪觀’은 1627년(인조5) 權慤(1604-1672)에게 보낸 편지에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김장생을 ‘禮家宗匠’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자신 또한 그 예설을 신뢰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¹⁵¹⁾ 이런 맥락에서 그는 1630년 8월 김장생이 사망하자 行素의 예를 행하게 된다.¹⁵²⁾ 이는 비록 급문하지는 않았지만 예학적 인도자로 인식했던 석학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고, 門弟에 준하는 예법의 갖추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맺음말

17세기 士大夫 지식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양성되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가시적 해답에 접근했다. 사대부 지식인의 지식문화 인프라의 양대 축은 冊과 聞見이었다. 책은 크게 ‘家傳本’, ‘受贈本’, ‘自備本’으로 구성되었으며, 趙克善의 경우 약 600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의 기획적 수집과 획득이었고, 그것은 학자적 방향 및 기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조극선은 그가 사사했던 세 선생과의 問答·聽講을 통해 지식을 수렴하고, 학문적 외연을 확대했다. 그러나 세 선생의 주장과 담론은 서로 달랐고, 쏟아지는 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취사할지는 오롯이 자신의 문제였다. 세 선생의 서로 다른 주장은 매우 정상적이다. 오히려 학과 또는 정파적 진영논리에 따라 의견이 획일적일 것이라 예단하는 것이 비정상적 학문의 형태일 것이다. 선생의 주장은 조극선의 학적 지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디 그는 ‘牛栗認識’에 있어 李珥보다는 成渾을 존신하는 입장이었지만 趙翼의 지속적인 율곡존신론적 단론은 조극선을 조익보다 더한 율곡학모론자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151) 趙克善, 『治谷集』 卷3, <答權思誠 認 書 丁卯>.

152) 趙克善, 『治谷日錄』 <1630年 8月 8日>.

조극선은 자기 시대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수렴하여 학파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학인을 꿈꾼 것 같다. 退溪學 관련 텍스트의 광범위한 수렴과 퇴계학에 대한 침잠은 그 단적인 양상으로 포착되었다. 그의 이러한 퇴계학 학습행위는 17세기 초반의 사상계가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음을 웅변한다.

조극선은 태생적으로 서인 기호학과에 속한 인물이었다. 율곡학에 대한 학적 기호는 연원을 증시했던 사람들의 학자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또한 그런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퇴계학과 율곡학의 보편적 수용을 통해 보다 큰 공부를 지향하려 했던 조극선의 의도는 조익이라는 스승과의 학문적 만남을 통해 일정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는 세월이 진전될수록 율곡에 대한 학문적 경도 의식을 보였고, ‘학자’·‘관료’ 양면적 측면에서 이이를 훼손할 수 없는 ‘完人’으로 설정, 추앙했다. 이것은 畿湖學人이 극복하기 어려웠던 퇴행적 자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조극선은 학자적 이기심이 컸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비중점을 禮學에 두었고, 그런 맥락에서 당대 최고의 예학자 金長生과의 학문적 교류를 결심할 정도로, 타진했다. 그러나 그는 ‘沙溪門下’ 입문만큼은 주저하고, 망설였다. ‘沙溪禮學’을 갈구하면서도 ‘사계문하’ 입문을 거부하는 것은 행위의 모순이다. 그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 그럼에도 그는 김장생과의 간접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예학적 훈련을 받았고, 예학자로 일컬어질 수 있을만큼의 자적도 남겼다. 그것은 私淑으로 포장된 예학적 ‘편취’의 과정으로 읽힌다.

이제 일기는 생활사의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조극선의 일기는 지성사 연구에 있어 일기의 활용성을 증언, 증명하는 양질의 텍스트임이 이 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일기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한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저술·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가? 실록은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문집은 그런 오해로부터 벗겨갈 수 있는가? 주

관성의 우려는 그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의 학술적 솜씨의 영역이지 자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닐 듯 하다. 불필요한 학문적 기우의 양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이 논문은 2021년 2월 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전

『承政院日記』;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趙克善, 『忍齋日錄』; 趙克善, 『治谷日錄』; 趙克善, 『治谷集』; 『家藏書籍』(趙克善宗家 所藏古文書); 『治谷門生錄』(趙克善宗家 所藏古文書); 朴世堂, 『西溪遺墨』(上中下); 權文海, 『草澗集』; 李滉, 『退溪言行錄』; 李滉, 『退溪先生文集攷證』; 李光庭, 『訥隱集』; 尹拯, 『明齋遺稿』; 李恒福, 『白沙集』; 申欽, 『象村集』; 張維, 『谿谷集』; 李潤雨, 『石潭集』; 李匡呂, 『世舊錄』; 金尙憲, 『淸陰集』; 朴知誠, 『潛治集』; 趙翼, 『浦渚集』

2. 논저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 일지사, 2000.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7세기 충청도 선비의 생활 기록』, 한중연 출판부, 2018.

김현영, 「순암 麗澤齋 장서의 형성과 散逸」,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숨김과 드러냄’-」, 『장서각』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김학수, 「湖西의 知性, 治谷 趙克善」, 『아산의 유학자들』Ⅱ, 지영사, 2009.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寒岡(鄭述)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손계영,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 『장서각』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Culture Infrastructure of the Literat in the 17th Century

-Based on the Intellectual Preference in *Injae-illok* and *Yagok-illok* of Jo Geukseon-

Kim, Hak-su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and culture infrastructu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literati in the 17th century as part of the study of intellectual history. Jo Geukseon,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scholar and official of the mid-17th century, was from Deoksan in Chungcheong-do and learned from Yi Myeong-jun, Park Ji-gye, and Jo Ik and was drafted for school activities, leaving behind a number of works, including literary works and his collection of works, *Yagokjip*. In addition, he can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scholar and official of the mid-17th century in that he served as a government position of intellectual hermit, such as Juvenile education officials(Dongmong Gyogwan 童蒙教官), assistant section chief of Ministry of Public Works(Gongjo Jwarang 工曹佐郎), Director of Studies in Seonggyungwan(Seonggyungwan Sa-eop 成均館司業), and the inspector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Saheonbu Jangryeong 司憲府掌令).

A small flaw in academia of intellectual history or thought history

is that there was a lack of interest and explanation for the process of an individual's growth as an intellectual, and this article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deficiency. Empirical identification of how many books were provided to 17th-century intellectuals, through which route the books were acquired, and how they were used for the self-development or growth of intellectuals is an academic process that cannot be overlooked. On the premise that it was the literature accumulated through discourse with the academic colleagues that influenced intellectual growth and the expansion of scholarly knowledge as much as the book, this article paid special attention to this part.

One of the important declarations in this article is that discussing intellectual history based on the logic of the Joseon Dynasty's political faction or school faction can involve many errors. Jo Geukseon is classified as a scholar of Giho School, which involves Yi Yi and Seong Hon, but his passion for Toegye Studies is comparable to that of contemporary Yeongnam scholars.

keywords :

Jo Geukseon, Injae-illok, Yagok-illok, Knowledge Culture, Books, Experience, History of Mentality, Archives, Yi Hwang, Yi Yi, Kim Jang-saeng, Yi Myeong-jun, Park Ji-gye, Jo Ik

